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이 가 영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우타고에운동부터 다이쿠현상까지

-うたごえ運動から「第九」現象まで-

2022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음악학과

김 수 진

우타고에운동부터 다이쿠현상까지

-うたごえ運動から「第九」現象まで-

이 가 영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음악학과

김 수 진

인 준 서

김수진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22년 5월

심사위원장 이 인 식



심사위원 이 가 영



심사위원 이 혜 진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 개요

본 논문은 매해 연말 무렵, 베토벤 9번 교향곡을 연주하는 일본의 ‘다이쿠(第九)’ 현상에 관한 관심에서 출발한 것이다. 다이쿠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 탄생하였는지, 어떤 방식으로 일본 문화 내부에 자리 잡는지, 그리고 어떻게 일본을 대표하는 음악문화의 일부가 되었는지 등의 질문을 다루면서 이 현상의 역사를 기술하고 그것의 의미를 찾아 나간다. 특별히 이 논문이 다이쿠와 더불어 주목하는 것은 ‘우타고에 운동(うたごえ運動)’이다. 이 논문은 우타고에 운동이 다이쿠 현상의 토양이 되었다는 가설을 제기하면서,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연계되어 있는지 심도 있게 탐구한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첫째, 우타고에 운동을 논의의 중심에 두고, 그것의 역사를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이후, 다이쿠 현상으로 관심을 옮겨, 이것을 주도한 로온(労音)과 산토리 일만 합창단의 활동 등을 기술하면서, 최근 2년간의 다이쿠 연주회 개최 상황을 상세하게 살펴볼 것이다. 이 논문은 합창운동과 합창서클 조직의 활동을 일본인의 정신, 감성, 정체성 등이 가장 잘 발현된 현상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통해 그들의 의식구조와 가치관을 조명해나가고자 한다. 이를 위해 ‘와(和)’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위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루스 베네딕트(Ruth Fulton Benedict)의 『국화와 칼』, 야마모토 시치헤이(山本七平)의 『일본인이란 무엇인가: 새로운 국화와 칼, 일본인이 파헤치는 일본의 행동원리』, 요네야마 토시나오(米山俊直)의 『일본인의 집단(나카마)의식』, 성호철의 『와(和)! 일본: 응집하는 일본인의 의식구조 해부』, 나카네 치에(中根千枝)의 『일본사회의 인간관계』 등의 문헌은 일본과 일본인의 내면에서 감지되는 양면성을 설명하기 위해 혼네(本音)와 타테마에(建前), 분위·공기(空気), 나카마(仲間), 응집성, 장소(場) 등의 용어를 제시한 바 있다.

‘와(和)’는 이러한 용어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이들을 아우르는 어떠한 것으로 사용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정치적 함의를 포함한 우타고에 운동으로부터 사회·문화적 운동으로서의 우타고에, 그리고 우타고에의 쇠퇴로부터 다이쿠 현상에 이르기까지의 흐름을 살펴보며 시민 주도적 활동으로써의 합창이 어떻게 일본인의 생활에 녹아있는지 알아볼 것이다.

일본 사회에서 ‘우타고에 운동’, 베토벤 9번 ‘합창’이 던지는 의미에 집중한 이유로는 일본과 일본인. 그리고 일본인이 구성하는 일본 사회 특유의 멘탈리티를 살펴보아 그들의 생활에 어떻게 합창 활동이 녹아있는지 알아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정치·사회·문화의 맥락에서 논의를 재구성하고자 하였다. 이 글에 음악 인류학적 관점이 내포된 것은 20세기 현대 일본의 맥락 속에서 우타고에 운동과 다이쿠 현상을 고찰해보고자 했음을 의미한다. 본 논문을 기점으로 우타고에 운동과 다이쿠 현상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시도되길 바란다.

목 차

논문개요

1. 서론	1
1.1. 목적 및 필요성	1
1.2. ‘우타고에 운동’에 관한 선행연구	4
1.3. ‘다이쿠’ 현상에 관한 선행연구	6
2. 역사 및 특징	8
2.1. 세계 2차대전 이전과 전후(戰後)를 기점으로 한 우타고에 운동 의 역사와 특징	8
2.2. 세계 2차대전 이후를 기점으로 한 우타고에 운동의 역사와 특징	9
2.3. 우타고에 운동의 레퍼토리	18
3. 다이쿠의 시작과 확산: 히메지와 오사카를 중심으로	20
3.1. ‘다이쿠’ 현상의 현재, 그리고 시민의 참획 · 주도형 프로젝트 ‘다이쿠’	22
4. 일본의 공동체 의식 ‘와(和)’	34
4.1. 하이브리드 일본문화, 혼종(昏鐘)의 일본문화	36
5. 결론	39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1. 서 론

1.1. 목적 및 필요성

일본문화가 한국문화와 차별화되는 지점은 무수히 많다. 그중 가장 흥미로운 것은 일본인들이 중·고등학생 시절부터 동아리 활동 또는 부활동(部活動, Club クラブ, Circle サークル)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사실이며 이러한 부활동의 내용이 종종 음악과 관련된 것이 많다는 점이다.¹⁾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중·고교시절의 음악과 관련된 부활동이 이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이후 대학의 서클 활동, 나아가 일터의 서클 활동으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일본인들은 중·고등학교를 졸업 한 이후 대학에 진학하거나 회사에 취업한 후에도 부활동을 ‘클럽(クラブ)’ ‘서클(サークル)’, ‘동호회’, ‘연구회’라는 이름으로 지속해나간다. 물론 시민 생활 속에 녹아든 이러한 서클 활동은 지역의 커뮤니티 활성화 등 긍정적인 기대를 불러일으킨다.

일반인이 참여하는 음악서클, 그리고 이들의 확장되고 결합된 형태가 만들어져 내는 가장 의미심장하고도 흥미로운 결과물 중 하나는 아마도 일본의 ‘다이쿠(第九)’일 것이다. 다이쿠는 ‘연말 무렵, 일본인에 의해 합창 또는 합주로 연주되는 베토벤 9번 교향곡, 그 관습’을 총칭한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베토벤 교향곡 9번을 연말마다 연주하는 일본의 ‘다이쿠’ 현상은 매우 긴 역사와 담론을 가진 일본 고유의 전통이며 관습으로 자리잡았다.

이 논문은 다이쿠 현상에 주목하면서 이와 관련된 상세한 담론을 기록해 나

1) 예컨대 일본의 대표적인 애니메이션인 “스즈미야 하루히의 우울(涼宮ハルヒの憂鬱)”, “엔젤 비트!(Angel Beats!)”, 4컷만화 단행본 『케이온(けいおん)』 등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음악 동아리에 가입하고 있으며, 이들의 동아리 활동은 내러티브 전개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다; 원작은 라이트 노벨로, 이후 애니메이션화 되었다.

가고자 한다. 특별히 이 논문이 시도하는 것은 이러한 다이쿠 현상의 뿌리를 일본의 합창활동 및 합창운동인 ‘우타고에 운동(うたごえ運動)’으로 설정하는 일이다. 이 논문은 우타고에 운동과 다이쿠 현상을 독립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주장하면서, 그것의 이유를 기술해나가고자 한다.

우타고에 운동은 세계 2차대전 이전 공산주의청년동맹(共産主義青年同盟), 전후 청년공산동맹(青年共産同盟, 민주청년동맹(民主青年同盟)의 전신)의 산하 조직인 중앙합창단(中央合唱団)과 성악가이자 교육자인 세키 아키코(関 鑑子, 1899-1973)로부터 시작된 일본의 노래 운동이다. 공산주의청년동맹은 이후 소멸과 재건의 역사를 거쳐, 1946년 2월 청년공산동맹(靑共)으로 재건되었다. 이 조직은 1949년, 민주주의학생동맹(民学同), 전일본민주청년동맹(全民靑)과 합동하여 일본민주청년단(民靑団)을 결성하였고, 1956년 11월 민주청년단 제5차 대회에서 일본민주청년동맹(日本民主靑年同盟)으로 개칭된 바 있다.

일본 공산당에 의해 출발한 우타고에 운동을 이끌던 것은 우타고에 서클이다. 그리고 이들은 합창 및 제창 형식으로 노래를 불렀다. 우타고에 서클에 속한 구성원들은 《청년가집》이라 불리는 선곡집에 수록된 작품을 중심으로 노래했을 뿐 아니라, 당대 일본 작곡가들의 작품도 자주 연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우타고에 운동의 출발은 우타고에 서클을 중심으로 전개된, 정치적인 성격을 띤 노래운동이었던 것이다.

특별히, 우타고에 운동이 전시 중 노동자 계층을 파고들었다는 점도 흥미롭다. 노동자 계층을 파고든 우타고에 운동은 일본 역사상 처음으로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노래운동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이전까지 제창과 합창의 경험이 없던 노동자들에게 함께 노래하기라는 새로운 경험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²⁾

2) 방악(일본음악) 중 성악곡의 대다수는 극장음악에서의 독창, 비극장음악에서의 독창이 차지한다. 또한, 서양음악의 유입 이후, 찬송가와 창가의 제창 및 합창으로 독창 이외의 문화가 향유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정치적인 성격의 우타고에 운동은 점진적으로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패전 후 일본에서 우타고에 운동이 자취를 감춘 것은 아니었다. 정치적인, 또는 다른 목적을 염두에 두면서 진행되던 전쟁 이전의 우타고에 운동과 달리 전쟁 후 이것은 일반 대중들의 작업 현장으로 파고들었고, 이곳에서 일반인들로 하여금 음악 서클을 조직하게 하였으며, 일본 사회와 문화에 본격적으로 침투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노래 부르기'라는 일본인들의 경험은 전쟁 후에 그들의 직장과 일상 속에 뿌리내리면서 점진적으로 일본 문화의 깊숙한 곳에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이다.

우타고에 운동을 이러한 시각으로 바라보면, 다이쿠 현상과의 공통점을 읽어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우타고에 운동을 통해 함께 노래하는 전통에 친숙했던 일본인들은 결국 다이쿠로 다시 한번 모여 베토벤을 노래하게 되는 모습을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는 것이다. 우타고에 운동의 시각으로 보면, 다이쿠는 전자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다. 뒤따르는 논의는 우타고에 운동과 다이쿠의 공통점에 주목하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이들이 각자를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한지, 나아가 이들은 어떤 방식으로 연계되어 있는지 논의해 보고자 한다.

한편, 우타고에 운동과 다이쿠 현상이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일본 음악문화의 가장 흥미로운 특징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루는 학문적인 연구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매우 부족하다. 우타고에 운동에 관한 연구는 겨우 21세기가 되어 서야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으며, 이마저도 일본을 제외하면 국내와 영미권의 일본음악 담론에서 배제되어 있다. 더불어 다이쿠 현상에 관한 선행연구 역시 국내외에서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주지하는 바와 같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베토벤과 그의 음악 작품에 관련된 논의는 많다. 그러나, 베토벤 9번 교향곡이 연말, 일본이라는 특수한 시간과 공간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이를 노래하는 문화 현상을 어떠한 방식으로 이해해야 하는지 논의하는 연구는 거의 없다.

본 논문은 특별히 일본 사회에서 감지되는 활발한 서클 활동,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음악 활동, 그리고 이를 자발적으로 조직하고 운영하고 이끌어가는 서클의 모습, 형태, 성격, 나아가 이것이 창조해 낸 우타고에 운동과 다이쿠 현상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서로서로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고, 관계를 맺고, 협상해 나가며 일본만의 독특한 음악문화 현상을 만들어 나가는지, 그리고 결국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지 고찰해보고자 한다.

본고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1장에서는 논문의 목적과 필요성, 선행연구, 제한점이 제시되고, 2장에서는 다이쿠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우타고에 운동의 역사를 논한다. 3장에서 다이쿠 현상의 흐름을 살펴본 후, 4장에서는 이 현상들을 풀어낼 실마리로 ‘와(和)’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다이쿠 현상의 ‘하이브리드(혼종) 문화적 측면도 함께 볼 것이다.

1.2. ‘우타고에 운동’에 관한 선행연구

우타고에 운동을 다루는 연구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매우 미비하다. 국내에서는 2000년대 이후 등장한 김보성의 2004년 논문, 심수경의 2014년 논문, 임경화의 2007년 논문과 2013년 논문에 주목할 만하며, 해외의 경우, 일부 일본 학자들에 의해 전개되고 있는 연구가 주를 이룬다.³⁾ 일본을 제외한 영미권 및 타

3) 국내 연구로는 김보성, “생활문화로서의 음악운동의 가능성: 일본 음악운동집단과의 국제교류 경험을 바탕으로,” 『음악과문화』 11(2004), 93-114. 심수경, “노랫소리 운동에 관한 일고찰-‘국민개창운동’과 ‘노랫소리운동’, 그리고 대중의 수용을 중심으로-,” 『日本研究』 36(2014), 311-328. 임경화, “‘우타고에’운동의 전후사 -민족과 민요의 발견-,” 『日本文化學報』 32(2007), 297-316. 임경화, “그곳에서는 모두가 노래를 불렀다: 일본 민중가요 운동의 루트로서의 소련 체험,” 『한국학연구』 30(2013), 125-162.이 있다.

지역의 해외 연구는 거의 없기 때문에. 해외의 경우 일본 지역을 한정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우타고에 운동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⁴⁾

카와니시 히데야(河西 秀哉)의 2007년 논문⁵⁾에 의하면, 음악학적 관심에서 우타고에 운동 전반을 검토하고 그 의미를 설명하려고 한 것 중에서 가장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우타고에 운동을 검토하고, 총체적으로 파악한 것이 초우키 세이지(長木 誠司; 2004-2005, 2010)의 연구⁶⁾이다. 초우키는 일본 전후 음악사를 서술하는 가운데, 우타고에 운동에 주목했다. 그는 좁은 의미의 우타고에에 관한 운동뿐만 아니라 전후의 합창에 관한 역사, 즉 넓은 의미의 우타고에에 관한 운동을 포함한, 사람들이 노래하는 행위의 의미를 역사적으로 밝히고 있다. 그때까지 음악학계 내에서 우타고에 운동이 본격적으로 연구된 적은 거의 없었다. 초우키는 전문 음악인이 아닌 세간의 사람들이 참여하여 발전해 온 경위에 주목했고, 일본 전후 음악사의 사회적인 배경과 함께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그 안에서 우타고에 운동을 검토하고 그 의미를 고찰하였다.

호데 요리유키(浦出 頼之; 2002)는 초기의 우타고에 운동의 역사적 전개를 컴팩트하게 정리하였고, 「히로시마」 표상과 노래 운동과의 관계성을 논한 노토하라 유미(能登原 由美; 2015), 쇼와 30년대의 민요 붐과 우타고에 운동의 관계성에 관해 검토한 테라다 마유미(寺田 真由美; 2003)나 유스케 와지마(輪島 裕介; 2012)도, 사람들의 민속적인 습관이나 히트곡이라는 사회현상과 우타고에 운동을 밀접하게 관련지어 논하고 있다. 또한 일본 근현대 노래 부르기의 역사를 다룬 와타나베 히로시(渡辺 裕; 2010), 일본 근현대 시기에 걸친 합창 역사를 통사적으로 그린 토노시타 타츠야(戸ノ下 達也; 2011)·요코야마 타쿠야

4) 대표적으로 Christopher Aldous, “Achieving Reversion: Protest and Authority in Okinawa, 1952-70,” *Modern Asian Studies* 37/2(2003), 485-508.이 있다.

5) 河西秀哉, “1950年代うたごえ運動論,” 『大原社会問題研究所雑誌』 707·708(2017), 7-19.

6) 長木誠司, “運動(ムーヴメント)としての戦後音楽史 1945~,” 『レコード芸術』 第53卷9号-第54卷2号(2004-2005), 『戦後の音楽』(東京都: 作品社, 2010).

(横山·琢哉; 2011)는, 노동자를 포함한 사람들이 목소리를 모아서 노래 부르기 시작한 일, 즉 넓은 의미의 우타고에 운동에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는 초우키의 문제의식을 받아 이어나가면서 음악을 넓은 시야의 중심에서 파악하려는 동향이 정착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와타나베·토노시타·요코야마의 연구도 광의(廣義)의 우타고에 운동을 언급하고 있다.

역사학·사상사의 안에서부터 우타고에 운동을 검토하는 연구도 있다. 이러한 연구는 구체적인 단체·지역의 우타고에 운동을 주제와 검토 대상으로 한 경우가 많다. 서클에 모인 노동자의 의식을 설명하는 하나로써 국철(JR)의 우타고에 운동을 연구한 미와 야스후미(三輪 泰史; 2007, 2009), 1950년대의 탄광 노동자에 의한 우타고에 운동을 연구한 미즈타마리 마유미(水溜 真由美; 2008, 2013), 1958년 오우지(王子) 체지 쟁의에서 보여지는 우타고에 운동을 논한 키시 노부코(岸 伸子; 2008), 도쿄 남부지역에서 벌어진 우타고에 운동의 상황을 연구한 미치바 치카노부(道場 親信; 2009, 2016), 노동운동 음악을 분석하는 가운데 우타고에 운동에 관해 연구한 나가사키 레오(長崎 励朗; 2013), 섬유업계 여성 노동자 서클 운동을 연구하며 우타고에 운동을 언급한 츠지 토모코(辻 智子; 2015), 교토 피차별 부락이나 이후에는 포크 등을 노래 부른 ‘《타케다의 자장가》(竹田の子守歌)’를 통해 1960년대의 교토의 우타고에 운동의 발전 과정을 설명한 타케시마 요시나리(武島 良成; 2013) 등의 연구가 있다.⁷⁾

1.3. ‘다이쿠’ 현상에 관한 선행연구

일본의 다이쿠 현상에 관한 국내의 연구는 이경분의 논문(2018)⁸⁾과 단행본으로 출간된 수정 논문(2019)⁹⁾만이 존재한다. 영미권 및 타 지역에서 진행된

7) 河西, 위의 글, 9.

8) 이경분, “베토벤 9번 교향곡의 일본화: 연말 다이쿠(第九) 현상의 비판적 연구,” 『음악과문화』 38(2018), 31-60.

연구로는 에디 창(Eddy Y.L. Chang)의 논문(2007)¹⁰과 단행본으로 출간된 논문(2009)¹¹이 있다. 일본에서 베토벤의 작곡가 연구, 작품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본 특유의 연말 ‘다이쿠’에 대한 논문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일반 대중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홈페이지와 짧은 신문 기사들은 찾아볼 수 있었으나, 깊이 있는 연구로 이행되지 않고 단순히 정보 전달에 그치고 말아서 아쉬울 따름이다.

9) 이경분, “다이쿠(第九) 현상과 일본적 베토벤,” 『흔들리는 공동체 다시 찾는 '일본'』, 김효진, 이은경 엮음 (서울: 박문사, 2019), 141-174.

10) Eddy Y.L. Chang, “The daiku phenomenon: social and cultural influences of Beethoven’s Ninth Symphony in Japan,” *Asia Europe Journal* 5 (2007), 93-114.

11) Chang, “10 Ode to ‘Personal Challenge’: Reconsidering Japanese Groupism and the Role of Beethoven’s Ninth in Catering to Socio-Cultural Needs” in *Identity in Crossroad Civilisations: Ethnicity, Nationalism and Globalism in Asia*, ed. Kolig, Erich, et al. (Netherlands: Amsterdam University Press, 2009.), 147-172.

2. 우타고에 운동은 노랫소리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였는가

2.1. 세계 2차대전 이전을 기점으로 한 우타고에 운동의 역사와 특징

1910-20년대, 세계 1차대전을 통해 전쟁 특수를 누리던 일본은 1930년대가 되어 대중사회화·자본주의화가 더 진전되어 나갔다. 이에 따라 일본 내 노동자의 자기규율적 생활태도를 요구하는 방침은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나갔다. 그 일환으로 민간기업 내에서도 직업 합창단이 점차 조직되기 시작하였다. 1937년 7월 중일전쟁이 발발하였고, 8월에는 국민 정신 총동원 운동이 시작되었다. 이에 의해 문화 활동에서는 보다 본격적으로 ‘위(上)로부터의 통제와 재편’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1940년 11월에 발회(發會)한 대일본산업보국회(이후 산보로 지칭)¹²⁾는 내무성·후생성의 지도하에 노동조합을 일원적으로 관리하여, 노동자를 총력전 체제에 편입시켰다. 산보는 후생 운동에 의해 노동자의 오락이나 문화를 전체주의적으로 재편하는 것을 지향했다. 예를 들면, 노동자 음악대회 개최, 강습회나 순회지도 실시, 노동자를 위한 후생 음악 선전 등의 활동을 통해 전방위적인 음악활동을 지원한 것이다. 즉, 이 시기를 거치면서, 일본 사회 내부에는 음악 활동을 통해 노동자를 관리하고 단결시키며 통제하는 문화가 싹트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¹³⁾

12) 전국노동조합동맹과 일본노동총동맹을 해산시킨 뒤 흩어진 노동조합들을 산업보국회의 산하에 두고 내무성, 후생성의 지도하에 노동자들을 전시체제에 통합시켰다.

13) 河西秀哉, “1950年代うたごえ運動論,” 『大原社会問題研究所雑誌』 707·708 (2017), 11.

한편, 노동자 음악대회에서 산보는 직업 현장의 일체성을 공고히 하기 위해 ‘참가’ 그 자체에 큰 의미를 두기도 하였다. 이는 결국 전시체제에서 언제든 총력전에 임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와 태도를 노동자들에게 강요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이었다. 음악 강습회 및 순회 지도에 관해서도, ‘어떻게 직장에서의 음악활동을 추진하는 주체를 형성해 나가는가’라는 관점이 중요시되어, 산보는 후생 음악 순회 지도반을 조직하고 음악가를 각 지역에 파견하여 순회 지도 및 강습회를 개최하여 나갔다. 전형적인 위로부터의 아래로 이루어지는 음악 문화 활동 장려라고 할 수 있다.

2.2. 세계 2차대전 이후를 기점으로 한 우타고에 운동의 역사와 특징

1940년대 아시아·태평양 전쟁의 패전으로 인해, 유엔군 최고사령관 총사령부는 일본의 민주화를 추진했다. 패전 후 노동자를 중심으로 펼쳐지던 음악활동은 점진적으로 소멸하였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도 노동자를 위한 다양한 음악활동이 진행되었고, 이를 위한 조직이 형성되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합창’이라는 형태의 음악활동을 경험하지 못했던 노동자들이 이러한 음악활동을 통해 합창단을 ‘조직’하였고, 합창단에서 함께 노래하는 체험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경험은 노동자들로 하여금 다양한 종류의 음악, 나아가 이와 관련된 활동에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계기이기도 하였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기업에서 조합이 본격적으로 결성되기 시작하면서 1946년 8월에는 일본노동조합총동맹(이후 총동맹으로 지칭)이 부활하였다. 이에 반해, 공산당의 영향력 하에 있던 조합은 전일본산업별노동조합(이후 산별

회의로 지칭)¹⁴⁾를 결성하고, 정부의 방침에 항거하면서 노동운동을 전개시켜 나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민주주의문화연맹(이후 문연으로 지칭)이 결성되었고, 산별회의도 문화부를 설치, 노동조합의 문화 활동과 민주주의 문화활동을 연계하여 전개해나가기 시작했다.¹⁵⁾ 정리하면, 전쟁 후 일본에서는 다양한 모양과 형태의 노동조합들이 결성되었고, 이러한 조합들 내부에서 음악활동이 감지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타고에 운동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것은 청년공산동맹이 ‘중앙합창단’을 조직하고, 이들의 지도자로 세키 아키코(関 鑑子, 1899-1973)라는 인물이 등장하면서부터이다. 청년공산동맹이란 일본공산당은 1946년 2월, 전쟁 이전, 공산주의청년동맹의 흐름을 계승하여 조직한 단체이다(이하 청공으로 지칭). 음악 활동을 상대적으로 등한시했던 전쟁 이전의 공산주의청년동맹과는 달리, 청공은 노동운동의 열기가 고조되던 전후의 사회 정세를 받아들여, 문화 공작의 일환으로서 1948년에 중앙코러스단(청공중앙합창단의 전신)을 조직하고, 우타고에 운동을 전개해나가기 시작하였다.

중앙코러스단의 지휘자를 맡아 이들을 이끌던 세키는 1921년에 동경음악학교 성악과를 졸업한 전문음악가이다. 이후, 동경제국대학 신인회 계열의 마르크스주의예술연구회에 참가한 것을 계기로, 프롤레타리아운동에 참여하여 1930년에는 일본프롤레타리아음악가동맹(PM) 초대위원장에 취임하였다. 이 프롤레타리아 운동은 음악뿐만 아니라 연극, 문학 등의 종합예술운동이었다. 이 운동을 통해 그와 우타고에 운동에 참여하고 있던 음악인들 간의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14) 노동조합의 총연맹을 설립하려는 움직임은 둘로 나뉘었다. 하나는 우파의 마츠오카 고마키치가 중심이 되고 좌파인 타카노 미노루가 합류한 196년 8월의 총동맹 결성대회 개최, 다른 하나는 전쟁 전 치안유지법에 따른 비합법적 공산당이 재건 공산당의 지도하에 8월 산별회의를 결성한 것이다.

15) 미국 제지펠프 제지노조 부위원장 제임스 킬렌은 일본의 노조운동을 공산주의라는 전체주의로부터 지켜내 평화주의적인 민주주의로 이끄는 일을 맡게 되었다. 공산당의 노조 지배에 대항하는 민주화 운동이야말로 그가 고대하던 바였다. 나카카타 고지, 『일본 노동 정치의 국제 관계사』 임영일 옮김, (서울: 후마니타스, 2017), 39, 47. 재인용.

세키는 1946년, 문연의 음악 분야 책임자로 취임한다. 이 시기부터 이미 도내의 일터를 돌며, 합창단 조직을 만들어 나갔다. 그리고, 그는 1946년 5월 25일의 일본 현대음악협회 결성에도 참가하였으며, 이케노우치 토모지로(池内 友次郎, 1906-1991), 오오키 마사오(大木 正夫, 1901-1971), 키요세 야스지(清瀬 保二, 1900-1981), 야마네 긴지(山根 銀二, 1906-1982) 등의 작곡가, 평론가들과 교류하면서 창작계와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나갔다. 1948년 2월에 청공창립 2주년 기념 문화 집회가 칸다 공립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여기서 중앙코러스단은 ‘중앙합창단’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출범하면서, 이를 합창단의 창립기념 행사로 기억하고 있다.

중앙합창단은 도쿄를 거점으로 하여 그들의 음악활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해나갔다.¹⁶⁾ 그런데, 이들은 자신의 연주회들을 통해 혁명가나 노동가 등을 발표했을 뿐 아니라, ‘가창 지도’를 통해 청중들을 만나면서 이들에게 침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이 지도한 일반 청중들이 그들의 직장으로 돌아가 직장 내에서 합창 운동, 즉 우타고에 운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지도했다. 이것이 중앙합창단의 최종목적이기도 하였다.

또한, 세키는 자신들이 만나는 청중들이 그들의 직장에서 우타고에 운동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노래하는 모임’(うたう会)을 만들어나갔다. 이후 ‘모두 노래하는 모임’(みんなうたう会)으로 명칭이 바뀌어, 전국 각지에 조직되는 직장 합창단이나 우타고에 서클의 기반이 되었다.¹⁷⁾ 다시 말하면, ‘모두 노래하는 모임’을 통해 청중(참가자)로부터, 새로운 (청공)합창단이 탄생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들은 정기 연주회를 개최함과 동시에 함께 모여 노래하는 행사도 시작하였다. 함께 모여 노래하는 행사, 즉 우타고에 제전이라고 할 것이다.

우타고에 제전은, 중앙합창단이 각지로 전개해나간 직장인들의 합창 운동을 한

16) 중앙합창단 행동 강령과 규약(1951년 제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조직 구성을 밝히고 있다. “합창단은 일정한 시험을 통과한 자 및 총회에서 추천된 자로 구성된다. 합창단의 기술 지도에 기술 지도 책임자 및 기술 지도자를 고문 및 촉탁으로서 초빙한다. 합창단의 활동을 활발히 하는, 단원 중, 보다 약간 명의 공연 인원을 선택하고 그 채용은 단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교육 기관(6개월)의 수료자를 가지고, 단원 조직을 구성한다.”

17) 河西, 위의 글, 8.

장소에 모으고, 이를 통해 대규모의 음악제로 확산시켜 나간 행사이며, 여기에 참여한 직장인들의 유대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었을 뿐 아니라 우타고에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제1회 일본 우타고에 제전’은 1953년 11월 29, 30일에 히비야 공연당과 공립강당에서 처음으로 실행되었다. 이때까지 ‘도쿄 우타고에’, ‘고베 우타고에’와 같이 각 지방에서 우타고에 연주회가 개최되어왔지만, 1953년부터는 전국 규모의 우타고에 제전이 비로소 개최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 이후 펼쳐진 일본의 노래운동에는 정치성이 거의 배제되어 있었지만, 이 제전의 개최 결정에 정치성이 전적으로 배제되어 있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이 제전은 1952년 시작된 우치나다(内灘)에 미군 기지를 설치하는 것에 반대하는 투쟁을 부분적으로 표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세키 아키코를 비롯하여 마미다 미치오(間宮 芳生, 1929-), 하야시 히카루(林 光 1931- 2012), 오노 테루코(小野 光子, 1927- 2017)와 같은 젊은 작곡가와 성악가들은 이들이 모이는 우타고에 제전에 “우타고에는 평화의 힘”이라는 슬로건을 내걸면서 우회적으로 미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보이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중앙합창단이 민청의 조직이었기 때문에 공산당의 영향을 받은 정치·사회성이 남아있었다. 당초에 민주화 정책 속에서 정치운동·사회운동은 장려되었고, 공산당의 영향을 받은 문화 운동도 적극적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이 당시의 청년과 지식인에게 끼친 영향력은 절대 무시할 수 없었다. 전후 학계는 이 마르크스주의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았다. 역사학자 나카무라 마사노리(中村 政則, 1935-2015)는 저서 『일본 전후사 1945-2005』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전후역사학은 혁명의 역사학이었고 민주화의 역사학이었다. 침략전쟁, 천황제, 봉건제 비판을 통해 근대적이고 민주적인 일본을 건설하여 궁극적으로는 일본의 사회주의를 전망하고 있었다. 전후역사학을 주도한 역사학연구회는 1949년에 ‘세

계사의 기본 법칙’, 50년에 ‘국가권력의 제단계’를 대회의 테마로 내세워 역사를 세계사적, 법칙적 입장에서 파악하는 방법을 제기했다. 이른바 1950년을 앞뒤로 한 시기는 역사학의 황금기였다. 그런데 1956년의 스탈린 비판, 헝가리 사건 전후를 경계로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회의가 싹틔고, 나아가 1960년대의 고도성장과 미국식 ‘근대화론’의 침투로 마르크스주의의 영향력은 점차 쇠퇴했다.¹⁸⁾

냉전체제의 구축에 따라 점령정책¹⁹⁾은 점차 바뀌기 시작한다. 이 역코스(逆코스)²⁰⁾로 인해 공산당이나 노동운동에 대한 지금까지의 정책은 바뀌고 그 세력은 쇠퇴하기 시작한다.²¹⁾ 그리고 1950년대 확산된 민주주의를 지키는 운동·평화를 요구하는 운동으로써 전개된 우타고에 운동은 당파성을 넘어 사람들의 공감을 얻기 시작했다.

1955년 개최된 「일본의 우타고에」 제전에서는 지금까지의 평화운동을 내건 슬로건에서 “고향의 노래를, 행복의 노래를”로 변화를 꾀했다. (河西; 2017, 재인용)²²⁾ 이는 사람들의 생활과 밀착된 우타고에 운동으로의 변화를 알 수 있는 것으로, 우리 주변에서 불리고 있는 노래, 그리고 오랜 전통을 가진 고향의 민요, 평화의 노래, 밝은 노래, 투쟁의 노래를 발굴하고 창작하여 「일본의 우타고에」 제전에 참

18) 나카무라 마사노리, 『일본 전후사 1945-2005』, 유재연 · 이종욱 옮김(파주: 논형, 2006), 53.

19) 미국에 의한 대일 점령은 약 7년간 계속되었다. 맥아더는 1949년 1월 대일 점령의 삼단계론을 밝힌 바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군사적 단계, 두 번째, 정치적 단계, 세 번째, 경제적 단계이다.

20) 1980년 9월, 미국의 암허스트 대학에서 점령을 주제로 한 국제회의가 열렸다. 이 때, 한 미국인 연구자가 점령 정책의 전환을 자동차의 운전 에 비유했는데, 그것은 기어를 1단에서 2단으로 바꾼 정도의 것이지 리버스(후진기어)를 넣었다는 식으로는 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즉, 미국 데모크라시는 반파시즘을 의미하는 동시에 반공주의를 포함한다. 따라서 비군사화에서 반공정책으로 나아간 것은 정책의 전환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 정치 이론에서 보았을 때 당연하다는 것이었다. (후략) 나카무라 마사노리, 위의 글, 46. 재인용.

21) 河西, 위의 글, 12.

22) <http://www.utago.jp/journal/archive.html> (2021년 10월 25일 접속)에는 『우타고에 신문』이 아카이빙 되어있다. 하지만 『우타고에 신문』 사이트를 통해서도 재인용한 제 7호, 1955년 9월 15일자 신문을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타고에 신문』 제 1호, 1955년 4월 7일자 신문 우측 상단에는 슬로건으로 “우타고에는 평화의 힘, 원폭을 용서치 않음을 전국민의 염원으로, 세계의 친구와 손을 잡자, 평화의 우타고에로 노동절(메이데이)에.”를 적어두었음을 알 수 있다.

가하자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우타고에 운동은 1950년대를 기점으로 정치적 연관성이 희미해지고 평화·반미 운동으로써의 역할이 강해진다. 한편, 60년대 이후 일본의 음악 문화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일본인들에게 민요는 더 이상 자신들의 노래가 아니었으며, 대중음악을 향유하기 시작한 계층에게는 민요란 옛것에 불과했다. 또한, 우타고에 운동의 중심점인 세키가 사망함에 따라 운동의 정치적인 방향성이 희석되기 시작했다. 임경화(2006)의 관점을 따라 우타고에 운동의 전환점을 1973년 세키의 사망 이후인 1974년-1975년 경²³⁾으로 설정했을 때, 그는 1975년경 새로이 만들어진 규약에 지금까지의 강령에서 보았던 ‘반미’, ‘민중’, ‘노동운동’ 등의 표현이 사라져 있으며, ‘민족’, ‘투쟁’ 등의 표현도 후퇴하여 시민운동으로의 지향성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한다.²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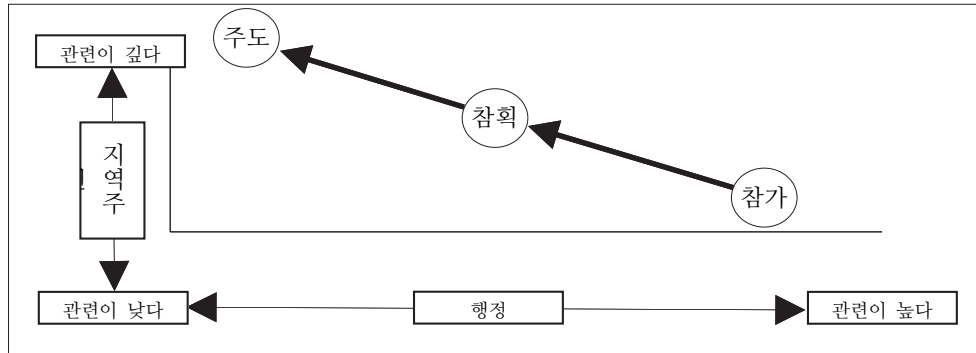
1970년대 이후 우타고에 서클은 직업 현장에서의 서클로 명맥을 유지하며 활동을 이어온다. 우타고에 서클에 참여한 사람들은 합창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합창이야말로 유일한 오락이며 합창은 우리 생활의 일부’라는 주장에서 느껴지듯이 함께 노래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이것이 생활에서 기인한 것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²⁵⁾ 현재에 와서는 우타고에 운동이 정치·사회운동으로 기능한다기보다 서클 활동의 일환으로 지속되고 있지만, 참여형 활동에서 참획, 그리고 주도의 주체적인 합창 활동으로의 변화는 우타고에 운동의 역사적·사회문화적 의의를 더욱 강화시킨다.

23) 1974년은 우타고에 전국협의회 제 7회 총회가 개최되어 새 방침이 결정된 해이다. 1975년 무렵에는 일본의 우타고에 전국협의회 규약이 제정되었다.

24) 임경화, “‘우타고에’운동의 전후사 -민족과 민요의 발견-,” 『일본문화학보』 32(2007), 311-312.

25) 河西, 위의 글, 18.

표 1 마을만들기(마치즈쿠리)에서의 참가·참획·주도의 관계



모든 예술은 사회적 상호 작용을 유발한다. 하지만 사회 참여 예술의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과정, 즉 작품을 만드는 행위 그 자체가 사회적이다. 더욱이, 일반적으로 사회 참여 예술의 특징은 소극적인 수용을 뛰어넘어서 역할을 맡은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결정된다. 실제로 지난 40여 년간 이루어진 수많은 예술 작업들이 관객의 참여를 독려해 왔다(플릭서스의 스코어와 지침들, 펠릭스 곤잘레스토레스의 설치 작품, 그리고 리크리트 티라바니자의 음식 나누기와 같은 관계 미학 관련 작업이 대부분 그러했다). 이러한 참여는 대개 아이디어의 실행이나 그 결과를 알 수 없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작업에 대한 자유로운 참여를 수반한다. (중략) 사회 참여 예술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요소 중 하나는, 보통의 예술 집단이나 예술계 외부에 존재하는 참가자들을 아우를 수 있는 확장성이다.²⁶⁾

우타고에 운동에 있어서, 청공(이후 민청)에 의해 우타고에 서클이 조직되고 교육되어 점차 확산되기 시작한 것은 참가와 참획 과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마쓰오 다다쓰 외 2인(2006)의 『시민이 참가하는 마치즈쿠리 |전략편|』에 의하면 ‘참가’는 관심을 가지는 것, 작업이나 학습을 즐겁다고 인식하는 것

26) 파블로 엘게라, 『사회참여 예술이란 무엇인가』, 고기탁 옮김(파주: 열린책들, 2013), 32-33.

이다. 그리고 참획으로 이어지는 리더적 인재를 발굴하는 장의 역할을 한다. ‘참획’은 앞 단계에서 발굴한 인재를 보다 나은 지역 리더로 육성하는 것으로 참가자 네트워킹 형성의 장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참획을 거쳐 이루어지는 프로젝트는 참여자의 ‘주도’로 전개된다.²⁷⁾

1950년대 중후반을 거쳐 전환되기 시작한 우타고에 운동의 양상은 이 ‘주도’의 과정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직장 내 네트워크가 조직되고, 직장 외 시민의 참여로 지역 기반의 합창 서클 네트워크까지 조직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참여자의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주도를 통해 서클 활동은 더욱 확산되어 협의(狹義)의 우타고에²⁸⁾가 아닌, 광의(廣義)의 우타고에²⁹⁾로 기능하게 된 것은 자명하다

위의 논의에서 이 논문은 우타고에 운동의 역사가 어떤 방식으로 변화해 왔는지 기술했다. 그 추이의 핵심은 우타고에 운동이 공산주의 이념과 사상의 영향 아래서 전개되었지만, 역사적 배경과 상황에 의해 정치적 이념과 사상의 영향을 벗어나 노동자 중심의 대중적 운동으로 전개된 것이라는 사실이다.

한편, 와타나베 히로시(渡辺 裕)는 저서 『노래하는 국민: 창가, 교가. 우타고에』(『歌う国民: 唱歌、校歌、うたごえ』)의 제7장에서 노동자 음악, 특히 노동자 노래에 관해 서술하고 있다.

프랑스 혁명에서 전형적으로 볼 수 있었던 ‘커뮤니티 송’의 방식을 가장 충실하게 계승한 것은 사회주의 진영이었습니다. 혁명 시에 목소리를 한데 맞추어 노래를 부르며 연대감을 고취해나가는 그러한 음악의 본연의 자세는 국가나 교가 등, 말하자면 지배자 측의 위로부터의 통치 수단으로써의 발전을 보여주고 있지만, 한편으로 노동자들의 연대를 위한 무기로서

27) 2.2. 내용과 표 1은 마쓰오 다다스·니시카와 요시이키·이사 아쓰시, 『시민이 참가하는 마치즈쿠리 |전략편|』, 진영환·임정민·정윤희 옮김 (파주: 도서출판 한울, 2006), 50-51.을 참고하여 서술하였다.

28) 세계 2차대전 이전과 이후의 정치적 운동으로서의 우타고에 운동을 의미한다.

29) 정치적 우타고에 운동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우타고에 운동을 포함한다.

발전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얼핏 보면 정반대로도 보이는 이 양자는 사실은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 같은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중, 그 중에서도 노동자를 위한 커뮤니티라는 이데올로기를 앞세우는 형태로 만들어진 동구권의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이러한 모습들이 그야말로 중첩되고 있으며, 노래가 큰 역할을 해 온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외의 여러 나라에서도 ‘노동자의 노래’는 단순히 동구권 진영 또는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통한 것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송’으로서 여러 형태로 얹혀있으며 그 나름대로 국가의 상황에 대응하여 발전해 온 모습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우타고에 운동 등도 이러한 큰 맥락 안에서 두고 보면 좌익 이데올로기의 틀 안에서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여러 다른 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³⁰⁾

그는 위와 같이 논하며 이후 7장, ‘사가(社歌)와 공장음악(工場音樂)’에서 다이쇼 시대부터 쇼와 시대 초기까지의 노동자음악의 흐름을 이야기한다. 이 시기는 직종과 규모에 상관없이 많은 회사가 사가(社歌)를 제정하던, ‘사가 제정 붐’이 일어났던 시기로 교가를 작곡하던 작곡가의 손을 거쳐 사가가 작곡되었다.³¹⁾

양대전간(兩大戰間, 즉 냉전체제)의 시기, 서양 각국에서는 공장에서의 음악 활동이 흥하기 시작했고, 그 움직임이 일본에도 도입되었다. 서양의 이러한 공장에서의 음악 활동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독일의 ‘노동자음악(Arbeitermusik)’이다. 독일 사회민주당이 고개를 든 바이마르공화국 시대의 독일에서는 노동운동이 성행하여 노동자들에 의한 여러 문화 활동이 전개되었고, 음악 분야에서도 공장노동자들이 악단을 조직하는 등의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베토벤 교향곡 9번(第九, 다이쿠)을 일만명 규모로 노래 불렀다는 이야기가 있다면, 노동자를 위한 만들어진 오케스트라나 그 연맹이 결성되어, 대규모

30) 渡辺 裕, 『歌う国民－唱歌、校歌、うたごえ』, (東京都: 中公新書, 2010), 224.

31) 渡辺, 위의 글, 228.

모의 대회가 결성되었다는 기록 또한 남아있다. 이러한 독일의 '노동자음악'은 이윽고 나치 정권 영향 아래 놓이게 되지만, 전후가 되면 '노동자음악'이 동독으로 흘러 들어가서 수용되어 가는 흐름을 보인다. 동독뿐만 아니라 동구권의 여러 국가에서 동일한 상황이 벌어지고, 노동자의 날에 노동자들이 모여 《인터네셔널》을 부르며 행진하는 현상은 일상다반사였다. 이러한 추세를 미루어 보아 일본 뿐만 아니라 전쟁 이전과 전후의 노동운동은 세계적인 흐름의 하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기에 일본의 우타고에 운동에서 일본의 음악 뿐 아니라 다양한 레퍼토리의 음악이 활용되었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2.3. 우타고에 운동의 레퍼토리

우타고에 운동 서클에서는 『청년가집』이라고 명명된 선곡집을 채택하여 이것에 실린 노래를 불렀다.³²⁾ 우타고에 운동의 레퍼토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일본 민요이다.³³⁾ 합창이나 우타고에 운동을 접해보지 않은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래에 흥미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민요가 필요했다. 우타고에 운동에서의 민요는 직립부동에서 노래하는 것이 아닌, 신체의 움직임을 동반하고 있다. 우타고에 운동에 있어서 민요를 부르는 것은 예술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지극히 가까운 생활의 실감 등을 모두 공유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그러한 생활을 보다 의식화하기 위하여 동작을 수반한 일본 민요를 불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일본 민요를 생활에 기인한 밝고 씩씩한 생산의 노래로써 부른 것은 노동가 레퍼토리로 추가될 수 있는 결과를 낳았다.

32) http://bunbun.boj.jp/okera/v_araki/sei_ka/seika_index.htm (2021년 10월 25일 접속.)의 표를 토대로 순서대로 정리한 자료는 별첨한다. (표2)

33) 일본 민요가 레퍼토리로써 쓰인 것은 당시 마르크스 주의의 퇴장을 대신하여 전경으로 등장한 일본 문화 내지는 일본 전통의 것을 이유로 들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토 히로오 외 8인, 『일본사상사』, 성해준 외 5인 옮김(서울: 논형, 2009), 460-462.를 참고하라.

우타고에 운동의 레퍼토리에는 제창 편성의 작품이 많다. 이 역시 초심자가 부르기 쉽게 레퍼토리로써 삼은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다성편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 역시 도입부터 다성부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이 진행되는 중에 성부가 나누어지는 경우가 많다(최후의 몇 소절만 다성적으로 불리기도 한다). 그리고 사회운동의 주축이기도 하였던 동구권 유럽의 민요가 다수 수록된 것을 볼 수 있으며,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음악을 수록해 1권부터 10권까지 출판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고의 마지막에 첨부한 표를 참고하라.

3. 다이쿠의 시작과 확산: 히메지와 오사카를 중심으로

다이쿠의 현상이 시작된 배경에는 로온(労音)이 있다. 여기서 로온이란, 근로자음악협의회(勤労者音楽協議会)의 줄임말이다. 일본 효고현 남부에 위치한 도시 히메지 근로자음악협회의 공식 홈페이지³⁴⁾에 따르면 1949년 로온이 탄생하였고, “좋은 음악을 쉽게, 기획·운영은 회원의 손으로(「良い音楽を安く、より多くの人々に」, 「企画運営は会員の手で」)”라는 슬로건과 함께 1954년 11번째로 히메지 로온이 발족되었다. 민주적 및 자주적 원칙에 의한 시민운동으로, 음악 문화를 널리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히메지 로온은 세계 민족 음악 시리즈 정례회를 통한 국제 교류, 시민 참가 합창단 활동, 민족 음악 연구회 활동 등을 통해 활발한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³⁵⁾

이 중 특히 살펴보고 싶은 것은 시민 참가 합창단 활동이다. 특별히 이 활동은 1972년 이후 베토벤 교향곡 9번(第九, 다이쿠)을 부르는 연례행사로 ‘다이쿠’를 정착시켰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들은 정기적으로 ‘다이쿠’를 부르며 여러 장르의 음악가와의 협연 또한 진행하고 있다. 한편, 히메지 로온의 활동 이외에 또 다른 시민 참가 합창단 활동이 있다. 우리에게 더 친숙하게 알려진 ‘산토리 일만의 다이쿠(サントリー一万の第九)’가 바로 그것이다.

1983년 오사카 성 홀의 연말 개관을 기념으로 삼아, “연말에는 다이쿠”라는 명칭으로 일만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다이쿠 특별 합창단(1万人の[第九]特別合唱団)이 만들어지게 된다. “하늘에 감도는 일만명의 노랫소리. 땅을 뒤흔드는 이백명의 연주자. 마음을 울리는 일만 오천명의 청중. 환희는 하나의 소용돌이가 된다(空に漂う1万の歌声。地を揺るがす2百の奏者。心を震わす1万5千の聴衆。歓喜はひとつの渦となる。)”는 테마로 진행된 제1회 연주회는 1983년 12

34) https://www.himeji-mitai.com/himeji_rouon/ranking/ (2021년 10월 15일 접속.)

35) 김보성, “생활문화로서의 음악운동의 가능성: 일본 음악운동집단과의 국제교류 경험을 바탕으로,” 『음악과 문화』 11(2004), 105-106.

월 4일에 개최되었다. 이후 현재까지 이 일만명의 도전은 계속되고 있다.

이경분(2018)은 연말의 ‘다이쿠’를 연주하는 관습이 정착된 것을 4가지 가설로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1920년 신교향악단이 1928년 연말에 연주한 이래 현재와 같이 정착되었다는 설(Jano, 2002), 두 번째, NHK심포니 오케스트라에 의해 연주된 이래 정착되었다는 설(Weisman, 1990), 세 번째, 1940년에 로젠슈토크(Joseph Rosenstock, 1895-1985)가 지휘한 일본교향악단의 연주가 끝난 때가 정확히 0시였기 때문이라는 설(Brasor, 2010), 네 번째, 1947년 망명 피아니스트 크로이처(Leonid Kreutzer, 1884-1953)의 지휘 하에 일본교향악단이 연주한 이래 정착되었다는 설(鈴木淑弘, 1998)이 있다.³⁶⁾

그런데 와타나베 히로시는 저서 『歌う国民』(2010)에서 문화 시설이 대도시뿐만 아니라 중소도시에까지 확대되어 개관되었다는 점, 고도성장을 배경으로 수많은 오케스트라가 결성되었다는 점, 우타고에 운동 등의 노동자 음악운동의 경험으로 시민들의 참여형 문화활동에 대한 욕구가 있었다는 점을 들며 ‘다이쿠’의 확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³⁷⁾

흥미롭게도, 우타고에 운동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던, 그러나 분명 명백한 쇠퇴의 길에 접어들던 무렵, 다이쿠는 시민의 참획 · 주도형 합창 서클 및 커뮤니티의 기반 동력을 바탕으로 일본 사회에 등장하기 시작한다. 즉, 우타고에 운동의 연장선상에서 다이쿠 현상이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이들을 연장선상에 두고 논의하기 이전, 최근 2년 동안의 다이쿠 현상이 어떻게 진행되어왔는지 그 모습을 소개하고 정리해보고자 한다.

3.1. ‘다이쿠’ 현상의 현재, 그리고 시민의 참획 · 주도형 프로젝트

36) 이경분, “베토벤 9번 교향곡의 일본화: 일본의 연말 다이쿠(第九)현상의 비판적 연구,” 『음악과 문화』 38(2018), 34-35. 재인용.

37) 이경분, 위의 글, 39.

트 ‘다이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의 유행에 따라 2020년과 2021년 음악계·공연계는 타격을 입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의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은 공연을 중지하거나 오케스트라 연주로만 진행, 혹은 온라인 생중계 및 녹화 중계를 시행하기도 하였다.

다음은 2020년 11월 말을 기준으로 발표된 ‘다이쿠’ 연주 일정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³⁸⁾

지역명	공연 (장소 및 일시)	시민 참여 합창 여부 ³⁹⁾
北海道 홋카이도	「札幌の第9」 2020 in hitaru 2020年12月26日(土) 開演17:00 2020年12月27日(日) 開演13:00 札幌文化芸術劇場hitaru	시민 참여 x
関東 칸사이	新日本フィル「第九」特別演奏会2020 2020年12月17日(木) · 開演19:00 横浜みなとみらいホール 2020年12月18日(金) · 開演19:00 · Bunkamura オーチャードホール 2020年12月19日(土) · 開演14:00 · サントリーホール 大ホール 2020年12月20日(日) · 開演14:00 ·	시민 참여 x

38) 클래식 공연 팬을 위한 웹·잡지 「ららら♪クラブ」 https://lalalaclub.com/2020/11/28/special_003/ 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2021년 10월 20일 접속.)

39) 음악대학 전공생으로 구성된 합창단은 전문 합창단으로 생각하여 시민 합창단에 포함하지 않았다.

すみだトリフォニーホール	
東京フィルハーモニー交響楽団 ベートーヴェン「第九」特別演奏会 2020年12月18日(金)・開演19:00 東京オペラシティ コンサートホール 2020年12月19日(土)・開演19:00 サントリーホール 大ホール 2020年12月20日(日)・開演15:00 Bunkamura オーチャードホール	시민 참여 x
日本フィル「第九」特別演奏会2020 2020年12月20日(日)・開演14:00 サントリーホール 大ホール	시민 참여 x
名曲全集・第162回 2020年12月20日(日)開演14時00分 ミュージア川崎 シンフォニーホール	시민 참여 x
「第九」と「皇帝」 2020年12月21日(月)・開演19:00 サントリーホール 大ホール	시민 참여 o
日本フィル第九特別演奏会2020 2020年12月22日(火)開演19:00 サントリーホール 大ホール 2020年12月23日(水)開演19:00 横浜みなとみらいホール 2020年12月26日(土)開演14:00 東京芸術劇場	시민 참여 x
ベートーヴェン「第9」演奏会 2020年12月23日(水)・開演19:00	시민 참여 x

	<p>NHKホール 2020年12月25日(金)・開演19:00</p> <p>NHKホール 2020年12月26日(土)・開演15:00</p> <p>NHKホール 神奈川フィルハーモニー管弦楽団 特別演奏会・ベートーヴェン「第九」 2020年12月24日(木)・開演19:00・ 横浜みなとみらいホール 2020年12月26日(土)・開演14:00・ ミュージア川崎シンフォニーホール 2020年12月27日(日)・開演14:00・ 藤沢市民会館・大ホール</p>	
	<p>東京交響楽団 特別演奏会 「第九」2020 2020年12月28日(月)・開演18:30・ サントリーホール 2020年12月29日(火)・開演14:00・ サントリーホール</p>	<p>시민 참여 x</p> <p>시민 참여 x</p>
	<p>ベートーヴェンは凄い! 全交響曲連続演奏会2020 2020年12月31日(木) 13:00分~ 東京文化会館・大ホール</p>	<p>베토벤 교향곡 전악장 시민 참여 x</p>
中部・	<p>サントリー1万人の第九 2021年12月6日(日)開演:15:00</p>	<p>시민 참여 o</p>

関西 中부· 간사이	大阪城ホール ベートーヴェン生誕250年特別企画 芸術文化センター管弦楽団 特別演奏会 佐渡裕 音楽の贈りもの PAC with ベートーヴェン!第2回 「佐渡裕 第九」 2020年12月12日(土)、13日(日) 両 日 開演14:00 兵庫県立芸術文化センターKOBELCO 大ホール	시민 참여 x
	関西フィルハーモニー管弦楽団 「第九」特別演奏会 2020年12月12日(土) 開演14:30 京都 コンサートホール	시민 참여 x
	第九演奏会 2020年12月18日(金) 開演18:45 2020年12月19日(土) 開演16:00 愛知県芸術劇場 コンサートホール	시민 참여 x
	読売日本交響楽団 第28回 大阪定期演奏会 2020年12月23日(水) 開演19:00 フェスティバルホール	시민 참여 x
	神戸フロイデ合唱団 第九交響曲 第53回公演 2020年12月23日(水) 開演19:00 兵庫県立芸術文化センターKOBELCO大 ホール	시민 참여 o

	特別演奏会「感動の第九」 2020年12月28日（金）・開演19:00 ザ・シンフォニーホール	시민 참여 ○
	大阪フィルハーモニー交響楽団・ 第9シンフォニーの夕べ 2020年12月29日（日）・開演17:00 フェスティバルホール	시민 참여 ○
中国・ 九州 큐고쿠・ 큐슈	さたけ・第九ひろしま2020・ ~オンライン演奏会~ 2021年12月19日（日）開演午後3時 広島サンプラザホール	시민 참여 x
	大分ベートーヴェン・プロジェクト2020 第九レクチャー&第九特別上映会 2020年12月12日（土）・18:30開始 iichiko総合文化センター	강의 및 라이브 상영 으로 시민 참여 x

표 3 2020년 다이쿠 연주 일정

하기(下記)는 2021년 10월 말을 기준으로 발표된 다이쿠 연주 일정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⁴⁰⁾

지역명	공연 (장소 및 일시)	시민 참여 합창 여부
北海道 홋카이도	-	-
東北 토호쿠	仙台フィルハーモニー管弦楽団 「第九」特別演奏会 2021/12/25(土) 13:00 東京エレクトロンホール	시민 참여 ○
関東甲信 越 칸토 코신 에츠 ⁴¹⁾	新日本フィル「第九」特別演奏会2021 2021/12/17(金) 19:00 サントリーホール・大ホール 2021/12/18(土) 14:00 すみだトリフォニーホール・大ホール 2021/12/19(日) 14:00 オーチャードホール 2021/12/20(月) 19:00 東京オペラシティ コン서트ホール： タケミツメモリアル	시민 참여 x
	読響「第九」特別演奏会 2021/12/20(月) 19:00	시민 참여 x

40) 티켓 판매 쇼핑 사이트인 チケットぴあ(티켓피아) <https://t.pia.jp/pia/tag/tag.do?tagCd=00000> 19 를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2021년 10월 25일 접속.)

41) 야마나시현, 나가노현, 니가타현을 아우르는 지역명이다.

	<p>東京芸術劇場・コンサートホール 2021/12/22(水) 19:00 サントリーホール・大ホール</p>	
	<p>東京都交響楽団 都響スペシャル「第九」 2021年12月24日(金) 19:00 東京芸術劇場コンサートホール 2021年12月25日(土) 14:00 東京文化会館 2021年12月26日(日) 14:00 サントリーホール</p>	<p>시민 참여 x</p>
	<p>東京交響楽団 特別演奏会「第九」2021 2021/12/28(火) 18:30 サントリーホール・大ホール</p>	<p>시민 참여 x</p>
	<p>東京フィルハーモニー交響楽団・ ベートーヴェン「第九」特別演奏会 2021/12/23(木) 19:00 東京オペラシティ・コンサートホール： タケミツメモリアルオーチャードホール 2021/12/25(土) 19:00 サントリーホール・大ホール 2021/12/26(日) 15:00 オーチャードホール</p>	<p>시민 참여 x</p>
	<p>東京シティ・フィルハーモニック管弦楽団 第九特別演奏会2021</p>	<p>시민 참여 o</p>

42) 토야마현, 이시카와현, 후쿠이현을 아우르는 지역명이다.

	<p>2021/12/28(火) 19:00 東京文化会館・大ホール</p>	
	<p>日本フィル 第九特別演奏会2021 2021/12/19(日) 14:00 サントリーホール・大ホール 2021/12/21(火) 19:00 サントリーホール・大ホール</p>	<p>합창: <u>조정 중</u></p>
	<p>日本フィル 第九特別演奏会2021 2021/12/22(水) 19:00 東京芸術劇場・コンサートホール 2021/12/23(木) 19:00 東京芸術劇場・コンサートホール 2021/12/27(月) 19:00 東京芸術劇場・コンサートホール 2021/12/28(火) 19:00 ミューザ川崎シンフォニーホール</p>	<p>합창: <u>조정 중</u></p>
	<p>コバケンとその仲間たちオーケストラ 史上最高の第九に挑むV o 1 . 2 2021/12/11(土) 19:30 サントリーホール・大ホール</p>	<p>시민 참여 o</p>
	<p>ベートーヴェンは凄い! 2021 第19回全交響曲連続演奏会 2021/12/31(金) 13:00 東京文化会館・大ホール</p>	<p>시민 참여 o</p>
	<p>バッハ・コレギウム・ジャパン</p>	<p>시민 참여 x</p>

2021/12/16(木) 19:00 東京オペラシティ・コンサートホール： タケミツメモリアル	
東京21世紀管弦楽団 「第九」 2021/12/17(金) 19:00 東京オペラシティ・コンサートホール： タケミツメモリアル	시민 참여 o
第九と皇帝 2021/12/2(木) 19:00 サントリーホール・大ホール	시민 참여 o
ベートーヴェン「交響曲第九番（合唱 付）」 2021/12/11(土) 15:00 ハーモニーホール座間・大ホール	시민 참여 o
神奈川フィルフューチャー・コンサート 藤沢公演 2021/12/17(金) 19:00 藤沢市民会館・大ホール	시민 참여 x
神奈川フィルフューチャー・コンサート 横浜公演 2021/12/18(土) 14:00 神奈川県民ホール・大ホール	시민 참여 x
名曲全集・第172回 2021/12/18(土) 14:00 ミューザ川崎シンフォニーホール	시민 참여 x
東京多摩交響楽団 創立45周年アニヴァーサリーコンサート	<u>시민 오케스트라</u>

	2022/2/4(金) 19:00 東京芸術劇場・コンサートホール	
	2021かわさき市民第九コンサート 2021/12/19(日) 14:00 ミューザ川崎シンフォニーホール	시민 참여 o
	東京交響楽団 2021/12/21(火) 19:00 東京オペラシティ・コンサートホール： タケミツメモリアル	시민 참여 x
中部 츄부	富士山静岡交響楽団「プロムナード・コンサート」 2021年12月18日(土) 14:00 静岡市清水文化会館(マリナート)大ホール	* 본래 県民参加による「 <u>歡喜の歌</u> 」第九コンサート(현민 참가에 의한「 <u>환희의 송가</u> 」다이쿠 콘서트)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u>코로나로 인해 프로그램 변경.</u>
	中部フィルハーモニー交響楽団・ 第78回定期演奏会・KOMAKIシリーズ2 2021/12/18(土) 15:00 小牧市市民会館	시민 참여 o
	歌手4人とピアニスト2人による6人の第九	시민 참여 x

	2021/12/23(木) 13:30 宗次ホール	
北陸 호쿠리쿠 ⁴²⁾	-	-
関西 칸사이	井上道義指揮 躍動の第九 2021/12/12(日) 14:00 ザ・シンフォニーホール	시민 참여 o
	サントリー1万人の第九 2021/12/5(日) 15:00 大阪城ホール	시민 참여 o
	ベートーヴェン「第九」 2021/12/14(火) 19:00 フェスティバルホール	시민 참여 o
	第九・de・クリスマス 2021/12/19(日) 13:30 ザ・シンフォニーホール	시민 참여 x
	21世紀の第九 2021/12/26(日) 14:00 ザ・シンフォニーホール	시민 참여 o
	京都市交響楽団 特別演奏会「第九コン サート」 2021/12/26(日) 14:30 京都コンサートホール・大ホール	시민 참여 o
中国・ 四国 츄고쿠・ 시코쿠	-	-

九州 · 沖繩 큐슈 · 오키나와	-	-
----------------------------	---	---

표 4 2021년 다이쿠 연주 일정

위 표3과 표4를 통해 2020년의 21건 다이쿠 연주 일정 중 시민 합창단 참여가 4건, 그 중심 지역이 칸사이(관서) 지역이라는 것을 볼 수 있었고, 2021년의 29건의 다이쿠 연주 일정 중 시민 합창단 참여가 14건(더하여 시민 오케스트라 한 건과 시민 합창단 프로그램 변경 한 건, 총 16건)과 그 중심 지역이 칸사이 · 칸토 (관서 · 관동)지역이라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 표가 의미하는 것은 히메지 로온의 다이쿠와 산토리 일만의 다이쿠가 처음 등장한 칸사이 지역이 지속적으로 시민 참획·주도형 다이쿠를 이어나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뒤따르는 논의는 ‘우타고에’와 ‘다이쿠’를 이어주는 가교는 과연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장이다.

4. 일본의 공동체 의식 ‘와(和)’

본고가 제안하고자 하는, 우타고에 운동과 ‘다이쿠’ 현상을 이어주는 가교는 ‘와(和)’라는 개념이다. 일본문화에서 발견되는 와라는 개념이 흥미로운 이유는 이것이 서로 성격이 다른 두 개의 상충되는 측면을 모두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⁴³⁾

성호철(2019)은 ‘와(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질적 요소로 훼손되거나 더럽혀지지 않고 구성원 모두 균일(均一)하게 같은 행동을 하는 평화로운 공간이 ‘와(和)의 세계’다. 또한 ‘와’는 ‘사이 좋게 한다’라는 뜻이다. 일본의 ‘와’는 자연의 조화라기보다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지고 유지되는 조화다. 구성원의 노력에 의해 완성되고 유지되는 조화다. (중략) ‘와’는 ‘동근 공간’이라는 뜻도 있다. 이는 같은 발음인 룬(輪)에서 온 뜻으로 본래 동글지 않은 것을 동글게 만들었다는 뜻을 지닌다.⁴⁴⁾

성호철이 제시한 ‘와(和)’는 ‘인공적으로 동글게 만들어지고 유지되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내부(內)의 세계는 자신의 입장이 아닌 다른 주체의 입장에서 사물을 보는 행위이자, 대상이 되는 다른 사람의 사고방식을 뜻하는 ‘메센(見線)’⁴⁵⁾이 지배한다. 평화로운 ‘와(和)’의 세계는 사양, 삼가, 겸손을 뜻하는 ‘엔료(遠慮)’⁴⁶⁾와 민폐를 뜻하는 ‘메이와쿠(迷惑)’⁴⁷⁾라는 행동양식을 통해 작동한다.

43) 일본은 헤이세이 시대를 거쳐 레이와 시대로 진입하였다. 2019년부터 적용된 새 연호인 레이와(令和)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가집 ‘만요슈(萬葉集)’의 문장 “初春令月, 氣淑風和(초봄 길한 달, 기운은 맑고 바람은 부드럽네.)”에서 유래했다. 현재까지 와(和)가 사용된 연호는 총 428개 중 19개에 이른다. 그만큼 일본인에게 있어 의미있는 글자라는 뜻일 것이다.

44) 성호철, 위의 글, 18-19.

45) 이는 ‘와’의 세계가 지향하는 방향을 의미하기도 한다. (성호철; 2019)

46) ‘와’의 행동 방식이자 배려의 말에 대해 친절하게 거절하는 행동이다. 이는 남을 배려하는 마음

다시 한번, 여기서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와(和)’라는 개념 안에는 타의나 외부에 의해 만들어지는, 또는 만들어져야 하는 동질성이라는 면이 함축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측면은 주체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의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긍정적인 면이라 말하기 어렵다.

그러나, 본고는 ‘와(和)’가 가진 이러한 정의가 함의하는 또 다른 면에 주목한다. 그리고 ‘와(和)’를 지인(知合い)·친구(友), 더 나아가 동료 또는 집단으로 일컬어지는 ‘나카마(仲間)’⁴⁸⁾ 관계로 이어진 모임이자 커뮤니티를 지탱하는 원리로 규정한다. 즉, ‘와(和)’를 통해 만들어지는 동질성을 역설적으로 창의적인 문화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동력으로 읽고자 하는 것이다. 본고의 이러한 시각은 요네야마 토시나오(米山 俊直, 1930-2006) 등의 저서 등에서도 발견된다. 예를 들면 그가 ‘이합집산의 자유로운 것’을 조직의 구성원리라 규정하면서 축소 및 확산을 반복하며 자유롭게 진행되어가는 커뮤니티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 등을 통해서이다.⁴⁹⁾

‘와(和)’를 일본인의 응집하고 균일하고자 하는 이유로 바라보면, 이것이 실제로 구현되는 일본문화의 예는 다이쿠 현상에 한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다 같이 모여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즐기며 공유하는 오타쿠(オタク)스러움, 한테 모여 음악을 즐기고, 운동을 즐기는, 어떠한 활동을 생활문화운동으로 이끄는 가능성, 소규모 모임으로부터 군집을 이루기까지 확산된 커뮤니티로의 이행, 조직 내부의 재순환적 현장(実地)으로써 기능하는 집단, 이 모든 것은 일본의 공동체 의식 ‘와(和)’에서 비롯된 현상이자 흐름으로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에서 비롯된 태도로 자신이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이득을 취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성호철; 2019) 또 다른 해석으로는 모든 일에 대해 한발 물러서서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태도를 뜻한다. (스기모토 츠토무; 2005)

47) 주변에 피해를 끼치는 행동을 포함하여, 정해진 룰을 지키지 않아 ‘와’가 훼손되는 모든 경우를 메이와쿠로 칭한다. (성호철; 2019)

48) 나카마는 함께 일을 하는 사람, 같은 일을 하는 사람, 또는 그 모임, 동류·반려 같은 사람을 의미한다. (요네야마 토시나오; 1997)

49) 요네야마 토시나오(米山 俊直), 『일본인의 집단(나카마) 의식』 (서울: 도서출판 소화, 1997), 99.

런 시각에서 본다면, 일본 사회에서, 일본인의 의식구조 속에서 발동한 ‘와(和)’가 우타고에와 다이쿠가 전국적인 네트워크의 합창 활동으로 발전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획(參劃)과 주도를 이끌어낸 원동력이라는 생각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이러한 원동력으로 작용한 ‘와(和)’는 나카네 치에(中根 千枝)의 『일본사회의 인간관계』에서도 모습을 드러낸다. 나카네는 자신의 저서에서 본고가 재정 의한 ‘와(和)’ 대신 ‘단일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이 일본 열도에 나타난 기본적인 문화의 공통성은 특히 에도시대 이후의 중앙 집권적인 정치 권력에 근거한 행정망의 발달에 의해서 조장되어, 강한 사회적 단일성이 형성되어 온 것이다. 나아가 근대에서 철저한 학교교육의 보급이 인구의 단일화에 더욱 공헌하고, 특히 전시의 거국일치체제 그리고 전후의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은 중산층의 증대, 확대라는 형태를 취하면서 점점 일본 사회의 단일화를 추진해 왔다고 할 수 있다.⁵⁰⁾

4.1. 하이브리드 일본문화, 혼종(混種)의 일본문화

화혼양재(和魂洋才)는 고유한 일본의 정신을 유지하며 서양의 학문 및 지식을 배운다는 일본 근대화 시기의 구호이다. 일본과 일본인은 일본문화, 즉 일본인이라고 표현되는 무언가가 확실히 있다고 믿어오고 이를 잃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왔다. 이것은 ‘와(和)’였고 이 정신이 녹아든 모든 활동은 일본의 문화로 자리잡게 되었다.

일본에 베토벤 9번 교향곡이 유입되고, 조직적으로 합창 서클이나 합창 교실 등이 만들어지면서 점점 베토벤 9번 교향곡은 일본화된 문화로 변용되었다. 음

50) 나카네 치에(中根 千枝), 『일본 사회의 인간관계』 (서울: 도서출판 소화, 2013), 142.

악학자 이경분은 2018년 논문 제목에 ‘베토벤 9번 교향곡의 일본화’라는 어구를 사용하면서 다이쿠 현상이 서양음악 문화와 일본 특유의 서클 문화가 합쳐진 하이브리드 문화의 일종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비교문화학자 이노미는 2012년 단행본으로 출간된 『하이브리드 스펙트럼: 진화하는 문화의 속성들』에 자신의 논문 “일본 문화를 움직이는 힘, 하이브리드의 전승과 이상”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이러하면 일본은 백제를 통해 들어 온 한자를 간략화하여 ‘히라가나’와 ‘카타카나’로 변용하였으며 오스트리아 음식인 슈니첼(schnitzel)이 변형된 포크 컷렛(pork cutlet)이 태평양을 건너 일본식 ‘돈가스’가 되어 세계 속의 ‘일본 음식’으로 거듭나고 있다. 일본 만화 ‘아톰(atom)’은 미국의 ‘마이티 마우스(mighty mouse)’를 모방한 것이며, ‘시부야계(sibuya-kei)’ 음악 또한 유럽의 일렉트로닉과 프랑스의 예예(ye-ye), 브라질의 삼바와 보사노바, 미국의 힙합 장르를 교묘하게 뒤섞어 일본인의 기호와 감성으로 재해석한 하이브리드 문화의 전형이다. 이처럼 일본의 하이브리드 문화는 다른 문화를 흡수하고 토착화하면서 일본이라는 문화적 경계를 교묘하게 다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⁵¹⁾ 대단한 문화적 연금술사인 일본인들은 스스로를 ‘탐욕스런 모방자’로 일컬으며 모방을 수치가 아닌 문화적 자부심으로 여긴다. ‘다른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것을 일본문화와 결합하여 고유한 문화를 만들어 내는 능력’이야말로 일본문화의 특수성이라는 것이다.⁵²⁾

다시 말해 일본의 모방은 단순히 남의 것을 그대로 따라 베끼는 것이 아닌 외래문화를 배우고 이용함으로써 일본의 토양에 맞게 실용적으로 갈고 다듬어 자신들만의 더 좋은 문화를 만든다는 진보적 취지를 담고 있다.⁵³⁾

51) 이노미, “일본 문화를 움직이는 힘, 하이브리드의 전승과 이상,” 『하이브리드 스펙트럼: 진화하는 문화의 속성들』 (2012), 249. 재인용.

52) 이노미, 위의 글, 249.

53) <http://www.kwnews.co.kr/nview.asp?s=1101&aid=210102900084> (2022년 05월 25일 접속)

‘와(和)’가 가장 잘 드러난 구체적 예시로써의 서클 활동, 그리고 베토벤 9번 교향곡의 유입과 연주에서 보이는 일본화 경향, 이 요소들은 다이쿠를 하이브리드 문화의 일종으로 볼 수 있게 해준다. 일본과 일본인의 정신성을 나타내는 ‘와(和)’, 이는 해외의 문화현상을 흡수하고 통합하여 일본의 문화현상으로 만드는 하이브리드화(혼종화)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5. 결 론

우타고에 운동을 통해 일터를 중심으로 합창 서클이 활발히 만들어진 후, 일본 시민들은 합창에 관심이 높아졌다. 그리고 이러한 합창 서클의 경험과 관심을 토대로 우타고에 운동이 쇠퇴한 자리에 베토벤 9번 교향곡 4악장 ‘합창’, 즉 연말 ‘다이쿠(第九)’ 현상이 우타고에의 빈자리를 메꾸고 있었다.

앞서 본고는 우타고에 운동의 역사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다이쿠 현상을 주도한 로온(労音)과 산토리 일만 합창단의 활동, 최근 2년간의 다이쿠 연주회 개최 상황을 연이어 살펴보았다. 또한, 일본과 일본인의 의식구조와 가치관이 가장 잘 발현된 현상으로 합창 운동 및 합창 서클 활동을 조명하며, 재정의한 ‘와(和)’를 통해 이 현상들을 재고해보았다.

학자마다 ‘와(和)’를 정의하고 설명하는 방식은 달랐으나, 일본과 일본인의 정신이 녹아든 모든 활동은 ‘와(和)’가 녹아든 산물로 풀이하였다. 우타고에 운동으로부터 다이쿠 현상까지 서서히 변용되어 흡수된 일본의 문화활동은 우리에게 신선하고 흥미로운 이야깃거리를 제공해주고 있다.

특히 본고가 시도한 것은 일본의 노래 운동인 우타고에 운동과 다이쿠 현상을 20세기 일본의 정치·사회·문화의 맥락 안에서 논의하는 일이었고, 이를 통해 ‘시민 주도적인 음악활동’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필요성은 이러한 성격의 음악활동이 일본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발견되는 문화현상이기 때문이다. 본고를 시작으로 시민이 주축이 된 다양한 지역의 다양한 음악활동에 관한 연구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김보성. “생활문화로서의 음악운동의 가능성: 일본 음악운동집단과의 국제교류 경험을 바탕으로.” 『음악과 문화』 11(2004): 93-114.
- 나카네 치에. 『일본사회의 인간관계』. 이광규 번역. 서울: 소화, 2013.
- 루스 베네딕트. 『국화와 칼』. 김윤식 · 오인석 번역. 서울: 을유문화사, 2008.
- 마쓰오 다다쓰 · 니시카와 요시이키 · 이사 아쓰시. 『시민이 참가하는 마치즈쿠리 |전략편|』. 진영환·임정민·정윤희 옮김. 파주: 한울, 2006.
- 사토 히로오 외 8인. 『일본사상사』. 성해준 외 5인 옮김. 서울: 논형, 2009.
- 성호철. 『와和! 일본: 응집하는 일본인의 의식구조 해부』. 파주: 나남, 2015.
- 심수경. “노랫소리 운동에 관한 일고찰 -‘국민개창운동’과 ‘노랫소리운동’, 그리고 대중의 수용을 중심으로-.” 『日本研究』 36(2014): 311-328.
- 아오키 타모츠. 『일본문화론의 변용』. 최경국 번역. 서울: 소화, 2012.
- 야마모토 시치헤이. 『일본인이란 무엇인가: 새로운 국화와 칼 일본인이 파헤치는 일본의 행동 원리』. 고경문 번역. 서울: 페이퍼로드, 2012.
- 요네야마 토시나오. 『일본인의 집단(나카마) 의식』. 김필동 번역. 서울: 소화, 1997.
- 이경분. “다이쿠(第九) 현상과 일본적 베토벤.” 『흔들리는 공동체 다시 찾는 일본』. 김효진 · 이은경 엮음. 서울: 박문사, 2019.

- _____. “베토벤 9번 교향곡의 일본화: 일본의 연말 다이쿠(第九)현상의 비판적 연구.” 『음악과 문화』 38(2018): 31-60.
- 이노미, “일본 문화를 움직이는 힘, 하이브리드의 전승과 이상.” 『하이브리드 스펙트럼: 진화하는 문화의 속성들』. 하이브리드미래문화연구소 편.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2.
- 임경화. “그곳에서는 모두가 노래를 불렀다: 일본 민중가요 운동의 루트로서의 소련 체험.” 『한국학연구』 30(2013): 125-162.
- 임경화. “‘우타고에’운동의 전후사 -민족과 민요의 발견-.” 『日本文化學報』 32(2007): 297-316.
- 파블로 엘게라. 『사회참여 예술이란 무엇인가』. 고기탁 옮김. 파주: 열린책들, 2013.
- 梅津紀雄. “「うたごえ運動」その背景の探求-ソ連幻想と弱者意識-.” 『工学院大学・研究論叢』 54/2(2017): 31-48.
- 河西秀哉. “1950年代うたごえ運動論.” 『大原社会問題研究所雑誌』 707-708(2017): 7-19.
- _____. “うたごえ運動の出発-中央合唱団『うたごえ』の分析を通じて-.” 『神戸女学院大学論集』 60/1 (2013): 75-91.
- 長木誠司. “運動(ムーヴメント)としての戦後音楽史 1945~.” 『レコード芸術』 第53卷9号-第54卷二号(2004-2005). 『戦後の音楽』. 東京都: 作品社, 2010.
- 日本前後史研究会編. 『日本戦後音楽史上』. 東京都: 平丹社, 2007.
- 渡辺裕. 『歌う国民-唱歌、校歌、うたごえ』 東京都: 中公新書, 2010.
- Christopher Aldous, “Achieving Reversion: Protest and Authority in Okinawa, 1952-70.” *Modern Asian Studies* 37/2(2003): 485-508.

https://www.himeji-mitai.com/himeji_rouon/ranking/. 2021년 10월 15일
접속.

https://lalalaclub.com/2020/11/28/special_003/. 2021년 10월 20일 접속.

<http://www.utago.gr.jp/journal/archive.html>. 2021년 10월 25일 접속.

<https://t.pia.jp/pia/tag/tag.do?tagCd=0000019>. 2021년 10월 25일 접속.

http://bunbun.boo.jp/okera/v_araki/sei_ka/seika_index.htm. 2021년 10월
25일 접속.

ABSTRACT

from 'Utage Movement' to 'Daiku' Phenomenon

Kim Soojin

Department of Music: Musicology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starts with the researcher's concern with the Japanese 'Daiku' phenomenon that they perform Beethoven's Ninth Symphony at the end of every year. Thus, the researcher reviews through what process 'Daiku' was born, how it has been established within the Japanese culture and how the symphony has become a part of the Japanese culture, and thereupon, describes the history of such a phenomenon and searches for its meanings. Together with 'Daiku' phenomenon, the researcher pay a special attention to 'Utage Movement'. This study sets the hypothesis that 'Utage Movement' has become a soil for 'Daiku' phenomenon, and thereby, examines how they are associated with each other.

To this end, this study reviews the history of 'Utage Movement' in the general. Then, this study describes the activities of Ro-on and Santori 10 Thousand chorus group, focusing on their 'Daiku' performances for the recent 2 years. This study defines that the chorus movement and chorus circle activities may well represent Japanese spirit, emotion and identity, and there

through, features their mind-sets and value system. Hence, this study suggests the concept of 'Wa' as a means of reviewing the 'Daiku' phenomenon. A series of books or literature explain about the double-faced Japan and her people's consciousness by suggesting such terminology as Honne, Tatemaie, Atmosphere·Air, Nakama and cohesion: Ruth Fulton Benedict's 'Chrysanthemum and Sword', Yamamoto Shichihei's 'Who are the Japanese?: New Chrysanthemum and Sword, Japan's Principle of Behavior reviewed by a Japanese', Yoneyama Toshinao's 'Japanese Group (Nakama) Consciousness' and Seong Ho Cheol's 'Wa! Japan: Anatomy of Condensing Japanese Mindset'. 'Wa' would be used to develop them more, encompassing them.

부 록

No.	곡명	읽는 법 (후리가나)	국가명	가 집	순서
1	美しき祖国のために	うつくしきそこのために	日本	1	1
2	若者よ	わかものよ	日本	1	3
4	おおスザンナ	おおすざんな	アメリカ	1	7
5	草競馬	くさけいば	アメリカ	1	9
6	スワニー河	すわにーがわ	アメリカ	1	10
7	もういやだ	もういやだ	アメリカ	1	12
8	金髪のジェニー	きんぱつのじえにー	アメリカ	1	13
9	オールドブラックジョー	おーるどぶらっくじょー	アメリカ	1	14
10	ネリーブリー	ねりーぶりー	アメリカ	1	16
11	懐かしのヴァージニア	なつかしのばーじにあ	アメリカ	1	17
12	アロハオエ	あろはおえ	アメリカ	1	19
13	武器はみんな捨てる	ぶきはみんなすてる	アメリカ	1	21
14	麦畑	むぎばたけ	イギリス	1	22
15	アニーローリー	あにーろーりー	イギリス	1	23
16	ロンドンデリーエア	ろんどんでりーえあー	イギリス	1	25
17	久しき昔	ひさしきむかし	イギリス	1	27
18	峠の我が家	とうげのわがや	アメリカ	1	29
19	故郷を離るる歌	こきょうをはなるるうた	ドイツ	1	32
20	山こそ我が家	やまこそわがや	ドイツ	1	33
21	村祭り	むらまつり	ドイツ	1	36
22	自由の歌	じゆうのうた	ドイツ	1	37
24	美わしき春	うるわしきはる	ドイツ	1	41
25	サンタルチア	さんたるちあ	イタリア	1	43
26	さらばナポリ	さらばなぽり	イタリア	1	44
27	遙かなるサンタルチア	はるかなるさんたるちあ	イタリア	1	46
28	帰れソレントへ	かえれそれんとへ	イタリア	1	48
29	フニクリフニクラ	ふにくりふにくら	イタリア	1	49
30	山の人気者	やまのにんきもの	イタリア	1	51
31	オー・ソレ・ミオ	おそーれみお	イタリア	1	54
32	蝶々	ちょうちょ	スペイン	1	55
33	ステンカ・ラージン	すてんからーじん	ロシア	1	59
34	ヴォルガ下り	ぼるがくだり	ロシア	1	61
35	トロイカ	とろいか	ロシア	1	62
36	仕事の歌	しごとのうた	ロシア	1	64
37	赤いサラファン	あかいさらふあん	ロシア	1	65
38	ぐみの木	ぐみのき	ロシア	1	67
39	バイカル湖のほとり	ばいかるこのほとり	ロシア	1	68
40	草原に	くさはらに	ロシア	1	69
41	黒き雲	くろきくも	ロシア	1	70
42	カリンカ	かりんか	ロシア	1	71
43	バルカンの星の下に	ばるかんのほしのしたに	ロシア	1	73
44	カチューシャ	かちゅーしゃ	ロシア	1	74
45	美わしき春の花よ	うるわしきはるのはなよ	ロシア	1	75
46	誰が知ろうか	だれがしろうか	ロシア	1	76
47	小麦色の娘	こむぎいろのむすめ	ロシア	1	77

48	道	みち	ロシア	1	79
49	泉のほとり	いずみのほとり	ロシア	1	82
50	航路	こうろ	ロシア	1	83
51	船のり	ふなのり	ロシア	1	85
52	ソーラン節	そーらんぶし	日本	1	86
53	どじょっこふなっこ	どじょっこふなっこ	日本	1	87
54	会津磐梯山	あいづばんだいさん	日本	1	88
55	八木節	やぎぶし	日本	1	89
56	秩父音頭	ちちぶおんど	日本	1	91
57	さくら	さくら	日本	1	92
58	江戸子守唄	えどこもりうた	日本	1	93
59	木曾節	きそぶし	日本	1	94
60	佐渡おけき	さどおけき	日本	1	95
61	防人のうた	さきもりのうた	日本	1	96
62	夕張娘	ゆうばりむすめ	日本	1	98
63	花（二部）	はな	日本	1	99
64	芝浦	しばうら	日本	1	102
65	嵐よ吹け	あらしよふけ	日本	1	103
66	流亡の曲	るぼうのきょく	日本	1	104
67	どっこい生きている	どっこい生きている	日本	1	105
68	平和の歌	へいわのうた	日本	1	108
69	金日成将軍の歌	きんにっせいしょうぐんのうた	朝鮮	1	109
70	農民歌	のうみんか	朝鮮	1	110
71	建設	けんせつ	朝鮮	1	111
72	輝く朝鮮	かがやくちょうせん	朝鮮	1	112
73	義勇軍行進曲	ぎゆうぐんこうしんきょく	中国	1	113
74	保衛黄河	ほえいこうが	中国	1	115
75	晴れた五月	はれたごがつ	日本	1	116
76	世界をつなげ花の輪に	せかいをつなげはなのわに	日本	1	117
77	町から村から工場から	まちからむらからこうばから	日本	1	119
78	同志よ固く結べ	どうしよかたくむすべ	ロシア	1	121
79	同志は倒れぬ	どうしはたおれぬ	ロシア	1	122
80	南葛労働者の歌	なんかつろうどうしゃのうた	日本	1	124
81	民族独立行動隊の歌	みんぞくどくりつこうどうたいのうた	日本	1	126
82	青年よ団結せよ	せいねんよだんけつせよ	日本	1	128
83	全世界民主青年歌	ぜんせかいみんしゅせいねんか	日本	1	130
84	ラ・マルセーユズ	ら・まるせーゆず	フランス	1	132
85	インターナショナル	いんたーなしょなる	フランス	1	133
86	仲間の歌	なかまのうた	日本	2	1
87	親友の歌	しんゆうのうた	ロシア	2	7
88	心の歌	こころのうた	日本	2	8
89	早春賦	そうしゅんふ	日本	2	9
90	ふるさとの	ふるさとの	日本	2	10
91	春の唄	はるのうた	日本	2	11
92	夏は爽ぬ	なつはきぬ	日本	2	12
93	赤とんぼ	あかとんぼ	日本	2	13
94	昼	ひる	日本	2	14
95	山小舎の灯	やまごやのともしび	日本	2	15
96	朝	あさ	日本	2	16
97	捨吉の歌	すてきちのうた	日本	2	18
98	一度でよい	いちどでよい	日本	2	19

100	母なる故郷	ははなるふるさと	日本	2	23
101	立てよ若人	たてよわこうど	日本	2	25
102	俺達の国	おれたちのくに	日本	2	27
103	冬から春へ	ふゆからはるへ	日本	2	28
104	大島節	おおしまぶし	日本	2	33
105	大漁節	たいりょうぶし	日本	2	34
106	ずいずいずっころばし	ずいずいずっころばし	日本	2	35
107	常磐炭坑節	じょうばんたんこうぶし	日本	2	36
108	三池炭坑節	みいけたんこうぶし	日本	2	37
109	お猪の子唄	おいのこうた	日本	2	38
110	お江戸日本橋	おえどにほんばし	日本	2	40
111	木曾節	きそぶし	日本	2	41
112	牧師と奴隷	ぼくしとどれい	アメリカ	2	45
113	ドリーデー	どりーでー	アメリカ	2	48
114	夢見る人	ゆめみるひと	アメリカ	2	48
115	ジングルベル	じんぐるべる	アメリカ	2	50
116	谷間の灯	たにまのともしび	アメリカ	2	51
117	ラ・パロマ	ら・ぱろま	アメリカ	2	54
118	故郷の廃家	こきょうのはいか	イギリス	2	55
119	殖生の宿	はにゅうのやど	イギリス	2	56
120	野ばら	のばら	ドイツ	2	58
121	ダンカン・グレイ	だんかんぐれい	ドイツ	2	60
122	獵人の合唱	かりゅうどのがっしょう	ドイツ	2	61
123	おどりうた	おどりうた	ドイツ	2	63
124	村のかじや	むらのかじや	ドイツ	2	65
125	故郷	ふるさと	日本	2	67
126	おおブレネリ	お・ぶれねり	ドイツ	2	68
127	ホフマンの舟唄	ほふまんのふなうた	ドイツ	2	69
128	ラ・スパニョラ	ら・すばにょら	イタリア	2	73
129	村の娘	むらのむすめ	イタリア	2	76
130	カプリ島	かぶりとう	イタリア	2	78
131	別れの曲	わかれのきょく	フランス	2	80
132	汝が友	ながとも	ハンガリー	2	81
133	トロイカ	とろいか	ロシア	2	82
134	おおカリーナの花が咲く	おおかりーなのはながさく	ロシア	2	84
135	リンゴの花咲く頃	りんごのはなさくころ	ロシア	2	84
136	灯	ともしび	ロシア	2	85
137	郵便馬車の馳者	ゆうびんばしやのぎょしや	ロシア	2	86
138	ジグーリ	じぐーり	ロシア	2	88
139	エルベ河	えるべがわ	ロシア	2	88
140	小川の向こう岸	おがわのむこうぎし	ロシア	2	89
141	収穫の歌	しゅうかくのうた	ロシア	2	91
142	祖国の歌	そこのうた	ロシア	2	92
143	五月のモスクワ	ごがつのもすくわ	ロシア	2	93
144	行商人の歌	ぎょうしょうにんのうた	ロシア	2	95
145	平和の歌	へいわのうた	ロシア	2	98
146	トラジ	とらじ	朝鮮	2	100
147	アリラン	ありらん	朝鮮	2	101
148	人民遊撃隊の歌	じんみんゆうげきたいのうた	朝鮮	2	102
149	けつまついてもころんでも	けつまついてもころんでも	中国	2	103
150	百姓はたのし	ひゃくしょうはたのし	中国	2	105

151	喜兒の歌	きじのうた	中国	2	106
152	全世界人民の心は一つ	ぜんせかいじんみんのこころはひとつ	中国	2	107
153	労働者は強い	ろうどうしゃはつよい	中国	2	110
154	武器と自由の歌	ぶきとじゆうのうた	中国	2	112
155	くるめくわだち	くるめくわだち	ドイツ	2	114
157	平和音頭	へいわおんど	日本	2	116
158	たたかいの中に	たたかいのなかに	日本	2	117
159	民族解放の歌	みんぞくかいほうのうた	日本	2	119
160	赤旗	あかはた	ドイツ	2	122
161	インターナショナル	いんたーなしょなる	フランス	2	123
162	晴れた五月	はれたごがつ	日本	2	126
163	開け行く歴史	ひらけゆくれきし	ロシア	2	127
164	憎しみのるつぼ	にくしみのるつぼ	日本	2	128
165	全世界民主青年歌	ぜんせかいみんしゅせいねんか	日本	2	132
166	祖国の山河に	そこくのさんがに	日本	3	1
167	平和を守れ	へいわをまもれ	日本	3	6
168	仲間達	なかまたち	日本	3	7
169	青春の歌	せいしゅんのうた	イギリス	3	8
170	スコットランドの釣鐘草	すこっとらんのつりがねそう	イギリス	3	10
171	なつかしき愛の歌	なつかしきあいのうた	イギリス	3	11
172	誰も知らぬ私の悲しみ	だれもしらぬわたしのかなしみ	アメリカ	3	14
173	深き河	ふかきかわ	アメリカ	3	15
174	さあ連れてこい	さあつれてけ	アメリカ	3	17
176	いとしのアリスは眠る	いとしのありすはねむる	アメリカ	3	18
177	楽し歌声	たのしうたごえ	ドイツ	3	21
178	三匹の蜂	さんびきのはち	ドイツ	3	22
179	かっこうワルツ	かっこうわると	ドイツ	3	23
180	ローレライ	ろーれらい	ドイツ	3	26
182	私はドクトル	わたしはどくとる	ドイツ	3	30
183	円舞曲	えんぶきょく	ドイツ	3	31
184	乾杯の歌	かんぱいのうた	イタリア	3	34
185	人民よ進め	じんみんよすすめ	イタリア	3	35
186	チリビリピン	ちりびりびん	イタリア	3	36
187	マリア・マリ	まりあ・まり	イタリア	3	39
188	家路	いえじ	ボヘミア	3	41
189	ジュアニタ	じゅあにた	スペイン	3	43
190	いちご	いちご	フィンランド	3	45
191	マドロスの歌	まどろすのうた	フランス	3	46
193	たてよ祖国の子ら	たてよそこくのこら	ポーランド	3	49
194	俺は鍛冶屋	おれはかじや	ロシア	3	50
195	お家の前で	おうちのまえで	ロシア	3	51
196	夜の鶯	よるのうぐいす	ロシア	3	52
197	黒い瞳の	くろいひとみの	ロシア	3	55
198	リラの花	りらのはな	ロシア	3	56
199	春の行進曲	はるのこうしんきょく	ロシア	3	57
200	樅の樹	かしのき	ロシア	3	62
201	夕べの集い	ゆうべのつどい	ロシア	3	63
202	灯	ともしび	ロシア	3	69
203	モスクワ行進曲	もすくわこうしんきょく	ロシア	3	70
204	呼応計画の歌	こおうけいかくのうた	ロシア	3	71
205	シベリア大地の歌	しべりあだいちのうた	ロシア	3	73

206	コムソモールの歌	こむそもーるのうた	ロシア	3	74
208	国の隅々から	くにのすみずみから	ロシア	3	77
209	島へ行こう	はたけへゆこう	朝鮮	3	79
210	民主の春	みんしゅのはる	朝鮮	3	81
211	種まきに行きましょう	たねまきにゆきましょう	朝鮮	3	82
212	たたえよ祖国	たたえよそこく	中国	3	83
213	草原情歌	そうげんじょうか	中国	3	85
214	糸つむぎ	いとつむぎ	中国	3	86
215	秋田音頭	あきたおんど	日本	3	87
216	最上川舟唄	もがみがわふなうた	日本	3	91
217	相馬盆唄	そうまぼんうた	日本	3	94
218	もずが枯木で	もずがかれきで	日本	3	95
219	手まり歌	てまりうた	日本	3	96
220	五木の子守歌	いつきのこもりうた	日本	3	97
221	椎名の稗つき歌	しいなのひえつきうた	日本	3	99
222	谷茶前の浜	たんちゃめのはま	日本	3	100
223	田植唄	たうえうた	日本	3	102
224	川（二部合唱）	かわ	日本	3	103
225	ゆりかご	ゆりかご	日本	3	107
226	虫の声	むしのこえ	日本	3	109
227	子馬	こうま	日本	3	110
228	だるま	だるま	日本	3	112
229	かっこう	かっこう	日本	3	112
230	祖国（岩上／岡田）	そこく	日本	3	113
231	愛する街	あいするまち	日本	3	117
232	皆な友達	みんなともだち	日本	3	118
235	母の願い	ははのねがい	日本	3	121
236	主婦のうたごえ	しゅふのうたごえ	日本	3	122
237	工場の中から	こうばのなかから	日本	3	128
238	京浜労働者	けいひんろうどうしゃ	日本	3	129
239	圧延音頭	あつえんおんど	日本	3	130
240	炭坑ばやし	たんこうばやし	日本	3	131
241	国鉄労働組合歌	こくてつろうどうくみあいか	日本	3	134
242	全電通組合歌	ぜんでんつうくみあいか	日本	3	135
243	全日通組合歌	ぜんにっつうくみあいか	日本	3	136
244	国際学生連盟の歌	こくさいがくせいれんめいのうた	日本	3	138
246	使命	しめい	日本	3	140
247	祖国の若者	そこくのわかもの	日本	3	142
248	民族独立行動隊の歌	みんぞくどくりつこうどうたいのうた	日本	3	144
249	インターナショナル	いんたーなしょなる	フランス	3	145
250	世界をつなげ花の輪に	せかいをつなげはなのわに	日本	3	148
251	晴れた五月	はれたごがつ	日本	3	149
252	ラ・マルセーユズ	ら・まるせーゆず	フランス	3	149
253	若者よ	わかものよ	日本	3	150
254	心の歌	こころのうた	日本	3	150
255	全世界民主青年歌	ぜんせかいみんしゅせいねんか	日本	3	151
256	青年よ団結せよ	せいねんよだんけつせよ	日本	3	151
257	原爆を許すまじ	げんぱくをゆるすまじ	日本	4	1
258	世界の青春	せかいのせいしゅん	ロシア	4	2
259	東京ー北京	とうきょうーぺきん	日本	4	4
260	線路の仕事	せんろのしごと	アメリカ	4	6

261	オールマン・リバー	おーるまんりばー	アメリカ	4	8
262	明るい日曜日	あかるいにちようび	アメリカ	4	11
263	老犬トレイ	ろうけんどれい	アメリカ	4	13
264	ミネトンカの湖畔	みねとんかのこはん	アメリカ	4	14
265	ハイリリ・ハイロー	はいりり・はいろー	アメリカ	4	16
266	希望のささやき	きぼうのささやき	アメリカ	4	18
267	春が来たよ	はるがきたよ	イギリス	4	19
268	ピクニック	びくにつく	イギリス	4	21
269	ゴーホームヤンキー	ごーほーむやんきー	イギリス	4	23
270	帰省	きせい	ドイツ	4	25
271	学生歌	がくせいか	ドイツ	4	26
272	小さなラッパ吹き	ちいさならっぱふき	ドイツ	4	29
273	めざめよ若人	めざめよわこうど	ドイツ	4	30
274	おどり	おどり	フランス	4	31
275	橋の上で	はしのうえで	フランス	4	32
276	村の婚礼	むらのこんれい	デンマーク	4	34
277	霜の旦	しものあした	チェコ	4	40
278	合唱のよろこび	がっしょうのよろこび	チェコ	4	41
280	おお牧場はみどり	おおまきはみどり	チェコ	4	44
281	嘆きのセレナーデ	なげきのせれなーで	イタリア	4	45
282	ニーナの死	にーなのし	イタリア	4	46
283	麦打ちの唄	むぎうちのうちた	イタリア	4	48
284	空しく古いぬ	むなしくおいぬ	スウェーデン	4	50
285	アイアイアイ	あいあいあい	スペイン	4	51
286	五月だよ	ごがつだよ	オランダ	4	52
287	春の声	はるのこえ	朝鮮	4	54
288	麦打ちの唄	むぎうちのうちた	朝鮮	4	55
289	泉のそばで	いずみのそばで	朝鮮	4	57
290	勝利のヤンコ	しょうりのやんこ	中国	4	58
291	戦車兵とトラクター手	せんしゃへいととらくたーしゅ	中国	4	59
292	花あそび	はなあそび	中国	4	61
293	大地はほほえむ	だいちほほえむ	ブラジル	4	62
294	自由ベトナム行進曲	じゆうべとなむこうしんきょく	インドネシア	4	63
295	インドネシア独立の歌	いんどねしあどくりつのうた	インドネシア	4	64
296	労働者と農民の団結の歌	ろうどうしゃとのうみんのだんけつのうた	インドネシア	4	65
297	村人の合唱	むらびとのがっしょう	ロシア	4	66
298	ヴォルガの歌	ぼるがのうちた	ロシア	4	70
299	今日はモスクワ	こんにちはもすくわ	ロシア	4	72
300	美わしモスクワ	うるわしもすくわ	ロシア	4	73
301	鐘が鳴れば	かねがなれば	ロシア	4	75
302	カチューシャ	かちゅーしゃ	ロシア	4	76
303	野こえ山こえ	のこえやまこえ	ロシア	4	78
304	すみれの瞳	すみれのひとみ	ロシア	4	79
305	森の楓	もりのかえで	ロシア	4	80
306	スメハ	すめは	ロシア	4	81
307	私達のブカレストにて	わたしたちのぶかれすとにて	ロシア	4	82
308	よきこい	よきこい	日本	4	84
309	遠島甚句	としまじんく	日本	4	87
310	伊那節	いなぶし	日本	4	88

311	長野平和音頭	ながのへいわおんど	日本	4	89
313	餅つき踊り	もちつきおどり	日本	4	91
314	子守唄	こもりうた	日本	4	93
315	月の輪音頭	つきのわおんど	日本	4	94
316	平和くどき	へいわくどき	日本	4	95
317	木びき唄	こびきうた	日本	4	96
318	箱根八里	はこねはちり	日本	4	98
319	平和こそ我らのもの	へいわこそわれらのもの	日本	4	99
320	誓い	ちかい	日本	4	104
321	元気な子供	げんきなこども	日本	4	114
322	俺は百姓	おれはひゃくしょう	日本	4	116
323	あの子	あのこ	日本	4	117
324	甦る広島	よみがえるひろしま	日本	4	118
325	守れ妙義	まもれみょうぎ	日本	4	119
326	いぬふぐり	いぬふぐり	日本	4	120
327	水爆犠牲者を忘れるな	すいばくぎせいしやをわすれるな	日本	4	121
328	きみ囚われて	きみとらわれて	日本	4	122
329	俺達は旗	おれたちははた	日本	4	123
330	ぼくらの歌	ぼくらのうた	日本	4	124
331	力を合わせりゃ線路もゆれる	ちからをあわせりゃせんろもゆれる	日本	4	125
332	俺は労働者だ	おれはろうどうしゃだ	日本	4	126
333	よるひるガチャンコ	よるひるがちゃんこ	日本	4	127
334	紡績女工はもう泣かないよ	ぼうせきじょこうはもうなかないよ	日本	4	128
335	珍鍔物音頭	ちんいものおんど	日本	4	129
336	青年行動隊の歌	せいねんこうどうたいのうた	日本	4	130
337	アジア平和行進曲	あじあへいわこうしんきょく	日本	4	131
338	しあわせの歌	しあわせのうた	日本	5	4
339	アラムーハン	あらむーはん	中国	5	6
340	ケンタッキーの我が家	けんたっきーのわがや	アメリカ	5	9
341	おやすみ	おやすみ	アメリカ	5	10
342	アロマ	あろま	アメリカ	5	12
343	旅愁	りょしゅう	アメリカ	5	13
344	平和署名を	へいわしよめいを	アメリカ	5	15
345	雪山讃歌	ゆきやまさんか	アメリカ	5	16
346	メリーウィドウ・ワルツ	めりーういどーわるつ	イギリス	5	17
347	ナンシー・リー	なんしーりー	イギリス	5	19
348	アイルランドの子守唄	あいるらんどのこもりうた	イギリス	5	21
349	夕ぐれに	ゆうぐれに	イギリス	5	22
350	愛の小鳥	あいのことり	イギリス	5	24
351	自由な若者	じゆうなわかもの	ドイツ	5	27
352	夢	ゆめ	ドイツ	5	28
353	ただ一度の賜り物	ただいちどのたまわりもの	ドイツ	5	30
354	春に寄せて	はるによせて	ドイツ	5	32
355	伸びゆく力	のびゆくちから	ドイツ	5	33
356	輝く五月	かがやくごがつ	ドイツ	5	34
357	リラの花	りらのはな	フランス	5	37
358	巴里祭	ぱりさい	フランス	5	38
359	ミュゼット	みゅーぜっと	フランス	5	40
360	海に来れ	うみにきたれ	イタリア	5	41
361	さらば恋人よ	さらばこいびとよ	イタリア	5	43
362	波濤を越えて	はとうをこえて	イタリア	5	44

363	フィンランディア	ふいんらんでいあ	フィンランド	5	48
364	追憶	ついおく	スペイン	5	50
365	禁じられた遊び	きんじられたあそび	スペイン	5	51
366	青い瞳	あおいひとみ	メキシコ	5	53
367	山への別れ	やまへのわかれ	スイス	5	54
368	青春のうた	せいしゅんのうた	ルーマニア	5	56
369	陽気な収穫	ようきなしゅうかく	ルーマニア	5	58
370	踊りましょう	おどりましょう	チェコ	5	63
371	シュワジヴェチカ	しゅわじゅべちか	ポーランド	5	64
372	行ってしまった小鳥	いってしまったことり	ポーランド	5	67
374	ククエチカ	くくえちか	ポーランド	5	70
375	友誼のワルツ	ゆうぎのわるとつ	ロシア	5	72
376	川岸のベンチで	かわぎしのべんちで	ロシア	5	73
377	レーニンの丘	れーにんのおか	ロシア	5	74
378	お前を待っている	おまえをまっている	ロシア	5	75
379	大地の歌	だいちのうた	ロシア	5	76
380	勤労者の讃歌	きんろうしゃのさんか	ロシア	5	77
381	ピオネールは木を植える	ぴおねーるはきをうえる	ロシア	5	78
382	祖国	そこく	ロシア	5	80
383	夕べの鐘	ゆうべのかね	ロシア	5	81
384	ボルガの舟歌	ぼるがのふなうた	ロシア	5	82
385	満州の丘に立ちて1	まんしゅうのおかにたちて	ロシア	5	84
386	炭鉱夫行進曲	たんこうふうしんきょく	ロシア	5	86
387	アムール河の波	あむーるかわのなみ	ロシア	5	88
388	若き我等	わかきわれら	インド	5	92
389	平和は戻ってきた	へいわはもどってきた	ベトナム	5	93
390	美しきわが故郷	うつくしきわがふるさと	朝鮮	5	95
391	襄陽八景	やんやんはっけい	朝鮮	5	96
392	東方紅	とうほうこう	中国	5	97
393	月が昇るとき	つきがのぼるとき	中国	5	98
394	羊飼いのむすめ	ひつじかいのむすめ	中国	5	101
395	黒田節	くろだぶし	日本	5	102
396	齊太郎節	さいたろうぶし	日本	5	103
397	磯節	いそぶし	日本	5	104
398	田植唄	たうえうた	日本	5	105
399	刈上げ唄	かりあげうた	日本	5	108
400	松島音頭	まつしまおんど	日本	5	110
401	七つの子	ななつのこ	日本	5	112
402	叱られて	しかられて	日本	5	113
403	夕やけこやけ	ゆうやけこやけ	日本	5	114
404	椰子の実	やしのみ	日本	5	116
405	かえるの合唱	かえるのがっしょう	日本	5	117
406	合唱讃歌	がっしょうさんか	日本	5	118
407	祖国2	そこく	日本	5	121
408	僕らの丘に	ぼくらのおかに	日本	5	122
409	火	ひ	日本	5	123
410	いつでも歌を忘れずに	いつでもうたをわすれずに	日本	5	124
411	号笛なりやまず	ごうてきなりやまず	日本	5	125
412	希望の歌	きぼうのうた	日本	5	126
413	緑の山河	みどりのさんが	日本	5	128
414	若きもの	わかきもの	日本	5	129

415	富士によす	ふじによす	日本	5	131
416	子守唄	こもりうた	日本	5	132
417	死んだ女の子	しんだおんなのこ	日本	5	133
418	鉢山の仲間	やまのなかま	日本	5	134
419	春のワルツ	はるのわるつ	日本	5	135
420	鶴鉄労働組合格	つるてつろうどうくみあいか	日本	5	137
421	青年行進曲	せいねんこうしんきょく	日本	5	138
422	東京の朝の歌	とうきょうのあさのうた	ロシア	6	1
423	正夫星よ	まさおぼしよ	日本	6	3
424	とべよ鳩よ	とべよはとよ	ロシア	6	5
425	明日の日のために	あしたのひのために	ロシア	6	7
426	青年のうた	せいねんのうた	ロシア	6	9
427	ワーシャ・ワシリョーク	わーしゃわしよーく	ロシア	6	10
428	労働の歌	ろうどうのうた	ロシア	6	12
429	誓いの石	ちかひのいし	ロシア	6	13
430	聖なる湖バイカル	せいなるみずうみばいかる	ロシア	6	16
431	白い帆がひとつ	しろいひがひとつ	ロシア	6	17
432	スリコ	すりこ	ロシア	6	18
433	ウチョース (巖)	うちよーす	ロシア	6	19
434	釣好き	つりずき	ロシア	6	20
435	忘るな	わするな	ロシア	6	21
436	祖国は聞いている	そこくはきいている	ロシア	6	24
437	偉大な君眠る	いだいなきみねむる	ロシア	6	26
438	愛しのジョニー	いとしのじょにー	ドイツ	6	27
439	春の踊り	はるのおどり	ドイツ	6	28
440	タウベルトの子守歌	たいべるとのこもりうた	ドイツ	6	30
441	ユービイディ	ゆびいでいー	ドイツ	6	32
442	仕立屋の歌	したてやのうた	ドイツ	6	34
443	おやまたはずした	おやまたはずした	フランス	6	35
444	囚人の歌	しゅうじんのうた	フランス	6	37
445	粉ひきのうた	こなひきのうた	フランス	6	38
446	マドリガール	まどりがーる	イタリア	6	39
447	カルメーラ	かるめーら	イタリア	6	40
448	道とおく	みちとおく	イタリア	6	42
449	小さいママの子守歌	ちいさいままのこもりうた	イタリア	6	43
450	さあ踊ろう	さあおどろう	スウェーデン	6	44
451	進め若人ひびけ歌声	すすめわこうどひびけうたごえ	チェコ	6	45
452	雲雀	ひばり	オランダ	6	49
453	モシュコフスキーのセレナータ	もしゅこふすきーのこせれなーた	ポーランド	6	50
454	春の日の花と輝く	はるのひはなとかがやく	イギリス	6	52
455	ケヴィン・バリ	けびん・ばり	イギリス	6	53
456	インディアンの子守唄	いんであんのこもりうた	アメリカ	6	54
457	愛しきプレーヤ	いとしきぶれーや	アメリカ	6	55
458	海の歌	うみのうた	アメリカ	6	56
459	野茨に寄す	のいばらによす	アメリカ	6	57
460	ブンガワン・ソロ	ぶんがわんそろ	インドネシア	6	60
461	田植えの唄	たうえのうた	インドネシア	6	62
462	青年の歌	せいねんのうた	中国	6	63
463	団結は力	だんけつはちから	中国	6	65

464	茶つみ	ちゃつみ	中国	6	66
465	千里の駒に乗って	せんりのこまにのって	朝鮮	6	67
466	協同組合村の歌	きょうどうくみあいそんのうた	朝鮮	6	69
467	祖国	そこく	朝鮮	6	71
468	田植唄	たうえうた	日本	6	72
469	津軽じょんがら	つがるじょんがら	日本	6	74
470	こきりこ	こきりこ	日本	6	75
471	茶もみうた	ちゃもみうた	日本	6	77
472	花笠踊り	はながさおどり	日本	6	78
473	木やり唄	きやりうた	日本	6	79
474	わしが鳥なら	わしがとりなら	日本	6	80
475	浅間の馬子	あさまのまご	日本	6	81
476	ふろたき	ふろたき	日本	6	82
477	田舎の踊り	いなかのおどり	日本	6	83
478	浜辺の歌	はまべのうた	日本	6	84
479	あかがり	あかがり	日本	6	85
480	子供の踊り	こどものおどり	日本	6	87
481	君死にともうことなかれ	きみにともうことなかれ	日本	6	89
482	夜明けの歌	よあけのうた	日本	6	91
483	桑ばたけ	くわばたけ	日本	6	93
484	明日は僕らのもの	あすはぼくらのもの	日本	6	94
485	真実の勝利の為に	しんじつのしょうりのために	日本	6	97
486	日本とインドはアジアの兄弟	にほんといんどはあじあのきょうだい	日本	6	98
487	陽気な仲間	ようきななかま	日本	6	99
488	どんぐりさん	どんぐりさん	日本	6	101
489	かあさんの歌	かあさんのうた	日本	6	103
490	ソレツケ節	それつけぶし	日本	6	104
491	もやせ斗魂	もやせとうこん	日本	6	105
492	俺達は金属労働者	おれたちはきんぞくろうどうしゃ	日本	6	108
493	炭掘る仲間	すみほるまかま	日本	6	109
494	沖縄を返せ	おきなわをかえせ	日本	6	110
495	沖縄よ	おきなわよ	日本	6	111
496	燎原の火のように	りょうげんのひのように	日本	6	114
497	輝く平和の星	かがうやくへいわのほし	日本	6	119
498	ヒロシマ	ひろしま	ロシア	7	1
499	つばめ	つばめ	ロシア	7	2
500	母おやの歌	ははおやのうた	日本	7	6
501	希望に明るく	きぼうにあかるく	ロシア	7	8
502	平和の誓い	へいわのちかい	ロシア	7	10
503	兵士のワルツ	へいしのわると	ロシア	7	11
504	いつも君と共に	いつもきみとともに	ロシア	7	13
505	ボルガのしらべ	ぼるがのしらべ	ロシア	7	15
506	ロシアの娘	ろしあのみすめ	ロシア	7	16
507	鐘の音	かねのね	ロシア	7	19
508	果てもなき荒野原	はてもなきあれのはら	ロシア	7	20
509	勝利めざして	しょうりめざして	ロシア	7	21
510	月かげさやかに	つきかげさやかに	ロシア	7	23
511	はるかに君おもい	はるかにきみおもい	ロシア	7	25
512	エルマクの死	えるまくのし	ロシア	7	26
513	開けゆく曠野	ひらけゆくこうや	ロシア	7	27
514	ざわめけバイカル	ざわめけばいかる	ロシア	7	29

515	ポリシカ・ポーレ	ぼりしか・ぼーれ	ロシア	7	30
516	モスクワ郊外の夕べ	もすくわこうがいのゆうべ	ロシア	7	32
517	行こう青年	ゆこうせいねん	ロシア	7	34
518	君わが心に	きみわがこころに	ドイツ	7	35
519	メルツェルさん	めるつゑるさん	ドイツ	7	36
520	月に寄す（月下懐郷）	つきによす	ドイツ	7	37
521	マリヤの子守唄	まりやのこもりうた	ドイツ	7	38
522	ナポリよさらば	なぼりよさらば	イタリア	7	40
523	おおかカリ	おおかるり	イタリア	7	41
524	セレナーデ	せれなーで	イタリア	7	43
525	マリアーナ	まりあーな	ユーゴ	7	45
526	アルプスの牧場	あるぶすのまきば	スイス	7	46
527	チロルの子守唄	ちろるのこもりうた	スイス	7	48
528	カナダ旅行	かなだりょこう	フランス	7	49
529	百姓娘	ひゃくしょうむすめ	ルーマニア	7	51
530	アンダルコ	あんだるこ	チェコ	7	53
531	クラコヴィアク	くらこびあく	ポーランド	7	55
532	ケルヴィンの森	けるびんのもり	イギリス	7	58
533	やどり木	やどりぎ	イギリス	7	59
534	乾せよ盃	ほせよさかずき	イギリス	7	61
535	ジョン・ブラウン	じょん・ぶらうん	アメリカ	7	62
536	かの瞳	かのひとみ	アメリカ	7	63
537	山の端に月の昇る頃	やまのはにつきののぼるころ	アメリカ	7	65
538	バンジョーひいて	ばんじょーひいて	アメリカ	7	67
539	私のインドネシア	わたしのいんどねしあ	インドネシア	7	68
540	熟れた葡萄	うれたぶどう	中国	7	70
541	もぎたてのリンゴ	もぎたてのりんご	中国	7	73
542	三十里鋪	さんじゅうりほ	中国	7	76
543	作業場の休憩	さぎょうばのきゅうけい	朝鮮	7	78
544	海のロマンス	うみのろまんす	朝鮮	7	80
545	ボチョンは我が故郷	ぼちょうんはわがふるさと	朝鮮	7	82
546	中国地方の子守歌	ちゅうごくちほうのこもりうた	日本	7	84
547	馬子唄	まごうた	日本	7	86
548	安曇節	あずみぶし	日本	7	88
549	機織唄	はたおりうた	日本	7	90
550	永良部百合の花	えらぶゆりのはな	日本	7	91
551	ペチカ	ぺちか	日本	7	92
552	雪の降る町を	ゆきのふるまちを	日本	7	93
553	送別の歌	そうべつのうた	日本	7	95
554	どんと来い	どんとこい	日本	7	97
555	三池の主婦の子守歌	みいけのしゅふのこもりうた	日本	7	99
556	はちまき固く	はちまきかたく	日本	7	100
557	みんなでみんなで敵をうて	みんなでみんなでてきをうて	日本	7	101
558	ふろそそげ春の陽	ふろそそげはるのひ	日本	7	103
559	明日を呼ぼう	あすをよぼう	日本	7	104
560	主婦のうた	しゅふのうた	日本	7	105
561	子どもの行進	こどものこうしん	日本	7	109
562	炭鉱の子	やまのこ	日本	7	110
563	松川を守る歌	まつかわをまもるうた	日本	7	111
564	三羽のガラス	さんばのからす	日本	7	113
565	いろり	いろり	日本	7	114

566	しらす畑	しらすばたけ	日本	7	115
567	俺たち若者	おれたちわかもの	日本	7	116
568	おいらは南部の労働者	おいらはなんぶのろうどうしゃ	日本	7	117
570	手	て	日本	7	119
571	返せ沖縄	かえせおきなわ	日本	7	120
572	糸の流れで	いとのがれで	日本	7	121
573	声高く	こえたかく	日本	7	123
574	この声きけ	このこえきけ	日本	7	124
575	大行進のうた	だいこうしんのうた	日本	7	125
576	つぶやきをささやきを声に…	つぶやきをささやきをこえにしよう	日本	7	127
577	子供を守る歌	こどもをまもるうた	日本	7	131
578	団結のきずな我ら若者	だんけつのかずなわれらわかもの	日本	7	138
579	今すぐ世界に平和を	いますぐせかいにへいわを	日本	8	1
580	キューバ・シーヤンキー・ ノー	きゅーばしー・やんキーのー	キューバ	8	2
581	十八才	じゅうはっさい	ロシア	8	3
582	はらかな遊星へ	はらかなゆうせいへ	ロシア	8	6
583	心さわぐ青春の歌	こころさわぐせいしゅんのうた	ロシア	8	8
584	こだま	こだま	ロシア	8	9
585	君はなぜ道を見つめて	きみはなぜみちをみつめて	ロシア	8	11
586	深き谷間	ふかきたにま	ロシア	8	12
587	若人の行進曲	わこうどのこうしんきょく	ロシア	8	13
588	私を責めないで	わたしをせめないで	ロシア	8	15
589	君知りて	きみしりて	ロシア	8	17
590	街のざわめきも聞こえず	まちのざわめきもきこえず	ロシア	8	20
591	お！長い夜	お！ながいよる	ロシア	8	21
592	輝く月	かがやくつき	ロシア	8	23
593	青年行進曲	せいねんこうしんきょく	ロシア	8	25
594	輝く道	かがやくみち	ロシア	8	27
595	ロシア	ろしあ	ロシア	8	33
596	春の憧れ	はるのあこがれ	ドイツ	8	43
597	さすらいの歌	さすらいのうた	ドイツ	8	44
598	ペピネッタ	ぺびねった	イタリア	8	47
599	幸福な乙女	こうふくなおとめ	イタリア	8	49
600	白い蝶々	しろいちょうちょ	イタリア	8	50
601	ブドーの一生	ぶどーのいっしょう	フランス	8	52
602	パリジェンヌ	ぱりじえんぬ	フランス	8	53
603	もしもあなたが	もしもあなたが	フィンランド	8	55
604	子守歌	こもりうた	フィンランド	8	57
605	草は緑に萌えている	くさはみどりにもえている	フィンランド	8	58
606	スキーヤーの歌	すきーやーのうた	フィンランド	8	60
607	エレンカ	えれんか	ブルガリア	8	61
608	おおバルカン	おおばるかん	ブルガリア	8	62
609	山へ行こうバルカンの	やまへゆこうばるかんの	ブルガリア	8	63
610	眠れる森に	ねむれるもりに	ブルガリア	8	65
612	瑠璃色のアドリア海	るりいろのあどリアかい	ユーゴ	8	69
613	ロックローモンド	ろっくろーもんど	イギリス	8	70
614	子守歌	こもりうた	イギリス	8	71
615	ゆうべ仲間が	ゆうべなかまが	イギリス	8	72
616	クカバラ	くかばら	オーストラリア	8	73

617	国際婦人衣服労働組合歌	こくさいふじんいふくろうどうくみあいか	アメリカ	8	74
618	このハンマーを取れ	このはんまーをとれ	アメリカ	8	75
619	見よ故郷	みよふるさと	アメリカ	8	76
620	紅い河の谷	あかいかわのたに	アメリカ	8	78
621	ディキシーランド	でいきしーらんど	アメリカ	8	79
622	ネリーよき人	ねりーよきひと	アメリカ	8	82
623	行けキューバ義勇軍	ゆけきゅーばぎゆうぐん	キューバ	8	83
624	七月二十六日	しちがつにじゅうろくにち	キューバ	8	85
625	自由のために	じゆうのために	アフリカ	8	86
626	エリー・バッチョの悲しみ	えりーばっちょのかなしみ	セイロン	8	87
627	ハローハロー・バンドン	はろーはろー・ばんどん	インドネシア	8	88
628	西イリアン行進曲	にしりあんこうしんきょく	インドネシア	8	89
629	インドネシアわが夢	いんどねしあわがゆめ	インドネシア	8	91
630	平壤は心のふるさと	へいじょうはこころのふるさと	朝鮮	8	92
631	カッコウ	かっこう	朝鮮	8	94
632	統一列車は走る	とういつれっしやははしる	朝鮮	8	95
633	社会主義好!	しゃかいしゅぎはお	中国	8	97
634	花を摘むなら紅い花	はなをつむならあかいはな	中国	8	100
635	戦斗と友誼	せんとうとゆうぎ	中国	8	101
636	台湾に必ず勝利の旗を掲げよう	たいわんにかならずしょうりのはたを	中国	8	103
637	幸福の河辺に豊作を祝う	こうふくのかわべにほうさくを	中国	8	105
638	石当節	せつとうぶし	日本	8	111
639	大綱打	おおつなうち	日本	8	112
640	たたら節	たたらぶし	日本	8	113
642	沖揚げ唄	おきあげうた	日本	8	117
643	汗水節	あしみずぶし	日本	8	120
644	豊年踊	ほうねんおどり	日本	8	121
645	夏の思い出	なつのおもいで	日本	8	122
646	うんばあの歌	うんばあのうた	日本	8	123
647	ガンバロウ	がんばろう	日本	8	125
648	折鶴むねに	おりづるむねに	日本	8	126
649	平和と軍縮を	へわとぐんしゅくを	日本	8	127
650	日中友好の歌	にっちゅうゆうこうのうた	日本	8	128
651	ようこそガガーリン	ようこそがーりん	日本	8	129
652	ナホトカー舞鶴	なほとかーまいづる	日本	8	130
653	平和音頭	へいわおんど	日本	8	132
654	森を作ろうよ	もりをつくろうよ	日本	8	133
655	斗う新島	たたかうにいじま	日本	8	135
656	勝利の旗を	しょうりのはたを	日本	8	136
657	うで	うで	日本	8	137
658	こぶしかためて	こぶしかためて	日本	8	138
659	手をつなごう	てをつなごう	日本	8	139
660	窓をひらごう	まどをひらごう	日本	8	140
661	明日は俺達の時代	あすはおれたちのじだい	日本	8	141
662	仲間の歌	なかまのうた	日本	8	142
663	心はいつも夜明けた	こころはいつもよあけだ	日本	8	144
664	戦列へ	せんれつへ	日本	8	145
665	みんなが笑う日まで	みんながわらうひまで	日本	9	4

666	白樺	しらかば	ロシア	9	5
667	全世界の労働者団結せよ	ぜんせかいのろうどうしゃだんけつ	中国	9	6
668	空におひさま	そらにおひさま	ロシア	9	10
669	ヨールカ	よーるか	ロシア	9	13
670	風よ吹け	かぜよふけ	ロシア	9	14
671	ヤンカ	やんか	ロシア	9	15
672	種まきすんだよ	たねまきすんだよ	ロシア	9	16
673	ジャガイモ	じゃがいも	ロシア	9	18
674	黒い瞳(め)	くろいひとみ	ロシア	9	19
675	わがうた	わがうた	ロシア	9	20
676	すばらしい都	すばらしいみやこ	ロシア	9	23
677	にがい	にがい	ロシア	9	24
678	ひばり	ひばり	ロシア	9	29
679	いとしい恋人	いとしいこいびと	ロシア	9	30
681	赤旗(せっき)	せっき	ロシア	9	34
682	前線にも春が来た	ぜんせんにもはるがきた	ロシア	9	36
683	道を行く	みちをゆく	ロシア	9	38
684	海	うみ	ロシア	9	40
685	ロシア人が戦争を…	ろしあじんがせんそうを	ロシア	9	44
686	ブッヘンワルドの警鐘	ぶっへんわろどのけいしょう	ロシア	9	46
687	祖国の歌	そこのうた	ドイツ	9	48
688	楽しき農夫	たのしきのうふ	ドイツ	9	49
689	折ればよかった	おればよかった	ドイツ	9	50
690	聖夜	せいや	ドイツ	9	53
691	羊飼いの娘	ひつじかいのむすめ	イタリア	9	54
692	愛の苦しみ	あいにくるしみ	イタリア	9	57
693	ジョスランの子守歌	じょすらんの子もりうた	フランス	9	59
694	白鳥	はくちょう	フランス	9	60
696	月影すでになく	つきかげすでになく	ポーランド	9	64
697	ハンガリー自由万歳	はんがりーじゆうばんざい	ハンガリー	9	65
698	ヤニチェク	やにちえく	チェコ	9	66
699	狼狩り	おおかみがり	イギリス	9	70
700	笛吹きティム	ふえふきていむ	イギリス	9	72
701	我等は勝つ	われらはかつ	日本	9	73
702	ジョー・ヒル	じょー・ひる	アメリカ	9	74
703	行けモーゼス	ゆけもーぜす	アメリカ	9	75
704	美わしのキューバ	うるわしのきゅーば	キューバ	9	76
705	わたしが死んだら	わたしがしんだら	エクアドル	9	78
706	アフリカは勝利する	あふりかはしょうりする	アフリカ	9	80
707	統一ベトナム	とういつべとなむ	ベトナム	9	82
708	南ベトナムを解放しよう	みなみべとなむをかいほうしよう	ベトナム	9	85
709	赤と白の旗	あかとしろのはた	インドネシア	9	86
710	アヨ・ママ	あよ・まま	インドネシア	9	87
711	恐れることなく前進しよう	おそれることなくぜんしんしよう	インドネシア	9	88
712	遊撃隊のカッコー	ゆうげきたいのかっこー	朝鮮	9	90
713	進め千里馬	すすめちよんりま	朝鮮	9	92
714	今日も大漁だ	きょうもたいりょうだ	朝鮮	9	94
715	愛国歌	あいこくか	朝鮮	9	97
716	森のトラクター手	もりのとらくたーしゅ	中国	9	98
717	海の向こう	うみのむこう	日本	9	103
718	母の幸	ははのさち	日本	9	104

719	またあるときは	またあるときは	日本	9	105
720	あわて床屋	あわてどこや	日本	9	106
721	向う横丁	むこうよこちょう	日本	9	107
722	砂持節	すなもちぶし	日本	9	108
723	田楽	でんがく	日本	9	109
724	越後木挽唄	えちごこびきうた	日本	9	113
725	沖揚げ音頭	おきあげおんど	日本	9	114
726	わが母の歌	わがははのうた	日本	9	123
727	折鶴	おりづる	日本	9	124
728	黒潮の歌	くろしおのうた	日本	9	126
729	東京一平壤	とうきょうーぴょんやん	日本	9	127
730	俺は旋盤工	おれはせんばんこう	日本	9	128
731	肩引き車	かたびきぐるま	日本	9	130
732	ゲンゴロの嫁入り	げんごろのよめいり	日本	9	131
733	俺達は太陽	おれたちはたいよう	日本	9	133
734	アコーディオンがつぶやいた	あこーでいおんがつぶやいた	日本	9	134
735	俺の町	おれのまち	日本	9	135
736	はがねの体その日のために	はがねのからだそのひのために	日本	9	136
737	怒りを炎に	いかりをほのおに	日本	9	137
738	組曲「兄ちゃんを返せ」	にいちゃんをかえせ	日本	9	139
739	労働者のうた	ろうどうしゃのうた	日本	9	144
740	アメリカは帰れ!	あめりかはかえれ!	日本	9	146
741	勝利はわれら人民のもの	しょうりはわれらじんみんのもの	日本	9	147
742	この勝利ひびけとどろけ	このしょうりひびけとどろけ	日本	9	148
743	地底のうた	じぞこのうた	日本	9	149
744	祖国きずくぼくら	そここきずくぼくら	日本	10	4
745	リムジンガン(臨津江)	りむじんがん	朝鮮	10	6
746	ラ・マルセーユズ	ら・まるせーゆず	フランス	10	7
747	ドニエーブルの嵐	どにゅーぶるのあらし	ロシア	10	11
749	森はざわめく	もりはざわめく	ロシア	10	14
750	バンドゥーラによせ	ばんどぅーらによせ	ロシア	10	15
751	ヴォルガ河を下る	ぼるががわをくだる	ロシア	10	16
752	リャーナ	りゃーな	ロシア	10	17
753	マルチュクギタラかなでりゃ	まくちゅぎたらかなでりゃ	ロシア	10	23
754	ヴォルガは流れる	ぼるがはながれる	ロシア	10	24
755	コザックの歌	こざっくのうた	ロシア	10	26
756	ソフィアの歌	そふいあのうた	ロシア	10	27
757	イタリアンポルカ	いたりあんぽるか	ロシア	10	28
758	娘たちの合唱	むすめたちのがっしょう	ロシア	10	33
759	朝	あさ	ロシア	10	36
760	栄光	えいこう	ロシア	10	38
761	うぐいすのうた	うぐいすのうた	ドイツ	10	50
762	徒歩旅行	とほりょこう	ドイツ	10	51
763	ブラムスの子守歌	ぶらーむすのこもりうた	ドイツ	10	52
764	春の歌	はるのうた	ドイツ	10	53
765	冬がやってくると	ふゆがやってくると	ドイツ	10	54
766	王子と王女	おうじとおうじょ	ドイツ	10	56
767	旅人の夜の歌	たびびとのよるのうた	ドイツ	10	57
768	いとしい君	いとしいきみ	イタリア	10	58
769	ラ・メール	ら・めーる	フランス	10	59
770	あべこべ世界	あべこべせかい	フランス	10	60

771	さんざしが咲いた（五月節）	さんざしがさいた	イギリス	10	62
772	ロビン・アディア	ろびん・あであ	イギリス	10	63
773	静かなドナウ	しずかなどなう	ブルガリア	10	64
774	若きバルチザンの歌	わかきぼるちぎんのうた	ブルガリア	10	64
776	英雄をたたえて	えいゆうをたたえて	ルーマニア	10	67
777	かがやく月かげ	かがやくつきかげ	ポーランド	10	69
778	羊飼いよ	ひつじかいよ	チェコスロバ キア	10	71
779	歴史きり開く労働	れきしきりひらくろうどうしゃ	チェコスロバ キア	10	72
780	かずかずの歌に	かずかずのうたに	チェコスロバ キア	10	73
781	ベトナムのお母さんへ	べとなむのおかあさんへ	アルバニア	10	76
782	鶴	つる	ハンガリー	10	78
783	スウェーデンの若人	すうゑーでんのわこうど	スウェーデン	10	82
784	花はどこへ行った	はなはどこへいった	アメリカ	10	84
785	橋を作ったのはこの俺だ	はしをつくったのはこのおれだ	アメリカ	10	85
786	グレンディパーク号	ぐれんでいばーぐごう	アメリカ	10	86
787	ヤンキードゥードゥル	やんきーどーどーる	アメリカ	10	88
788	ジェリコの戦い	じぇりこのたたかい	アメリカ	10	90
789	三大陸人民行進曲	さんたいりくじんみんこうしんきょく	キューバ	10	92
790	わが人民はひとつ	わがじんみんはひとつ	ベトナム	10	94
791	ベトナム解放区の春	べとなむかいほうくのはる	ベトナム	10	96
792	ベトナムの乙女たち	べとなむのおとめたち	ベトナム	10	97
793	怒りの叫び	いかりのさけび	ベトナム	10	98
794	ベトナム抒情詩	べとなむじょじょうし	ベトナム	10	100
795	行動のとき	こうどうのとき	ベトナム	10	102
796	ノア山に登ろう	のあさんへのぼろう	インドネシア	10	104
797	祖国（インドネシア）	そこく	インドネシア	10	105
798	つつじ	つつじ	朝鮮	10	106
799	ふぶき	ふぶき	朝鮮	10	108
800	東海に橋をかけよう	とうかいにはしをかけよう	朝鮮	10	110
801	黄金のリンゴの木を植えた	こがねのりんごのきをうえた	朝鮮	10	112
802	千里馬進軍	ちよんりましんぐん	朝鮮	10	114
803	波止場労働者の歌	はとぼろうどうしゃのうた	中国	10	118
804	ていんさぐぬ花	ていんさぐのはな	日本	10	120
805	伊江島の子守唄	いえじまのこもりうた	日本	10	121
806	庄内おばこ	しょうないおばこ	日本	10	122
807	地づき歌	じづきのうた	日本	10	123
808	木場の舟歌	きばのふなうた	日本	10	124
809	からたちの花	からたちはな	日本	10	126
810	平城山	ならやま	日本	10	128
811	星よお前は	ほしよおまえは	日本	10	130
812	おい仲間たち	おいなかまたち	日本	10	131
813	五月のうた	ごがつのうた	日本	10	132
814	わたぼこの中に咲いた花	わたぼこのなかにさいたはな	日本	10	133
815	すばらしき明日のために	すばらしきあすのために	日本	10	134
816	俺達の恋	おれたちのこい	日本	10	135
817	大須っ子	おおすっこ	日本	10	137

818	この手をつないで	このてをつないで	日本	10	138
819	造船労働者の歌	ぞうせんろうどうしゃのうた	日本	10	139
820	自動車を作る仲間たち	じどうしゃをつくるなかまたち	日本	10	140
821	黒い赤旗	くろいあかはた	日本	10	141
822	世なおし音頭	よなおしおんど	日本	10	142
824	あかつきの空に	あかつきのそらに	日本	10	145
825	南ベトナムからの手紙	みなみべとなむかたのてがみ	日本	10	146
826	ベトナムへ送るまい	べとなむへおくるまい	日本	10	148
827	統一の旗のもとに	とういつのはたのもとに	日本	10	149
828	おはよう東京	おはようとうきょう	日本	10	150
829	一坪たりとも渡すまい	ひとつぼたりともわたすまい	日本	10	152
830	返せ沖縄「第6章」	かえせおきなわ	日本	10	153
831	全世界民主青年歌	ぜんせかいみんしゅせいねんか	日本		6
832	東京－モスクワ	とうきょう－もすくわ	日本		8
833	僕ら青年	ぼくらせいねん	日本		9
834	平和と友情の歌	へいわとゆうじょうのうた	日本		11
835	おおフェスティバル	おおふえすてばる	日本		12
836	フェスティバルの歌	ふえすてばるのうた	日本		13
837	学生行進曲	がくせいこうしんきょく	ロシア		14
838	平和と友情のボルカ	へいわとゆうじょうのぼるか	日本		16
839	ウラルのグミの木	うらるのぐみのき	ロシア		17
840	リャーナ	りゃーな	ロシア		19
841	はるか遠く	はるかとおく	ロシア		20
842	五月のモスクワ	ごがつのもすくわ	ロシア		22
843	相馬盆唄	そうまぼんうた	日本		23
845	荒城の月	こうじょうのつき	日本		27
846	最上川舟唄	もがみがわふなうた	日本		28
847	外山節	そとやまぶし	日本		31
848	娘さん	むすめさん	ヨーロッパ		32
849	私達のブカレストにて	わたしたちのぶかれすとにて	ロシア		37
850	五月の恋人	ごがつのこいびと	ヨーロッパ		38
851	踊りましょう	おどりましょう	ヨーロッパ		40
852	ヘルヴェチアの子供達	へるべちあの子どもたち	ヨーロッパ		41
853	美わしきわが故郷	うるわしきわがふるさと	アジア		43
854	海の歌	うみのうた	アジア		45
855	水蓮の舞	すいれんのまい	アジア		46
856	草原に太陽は昇る	そうげんにたいようはのぼる	アジア		48
857	友情のワルツ	ゆうじょうのわるつ	アジア		49
858	東京－北京	とうきょう－ぺきん	日本		50
859	うたごえよ野の花のように	うたごえよのはなのように	日本		52
860	青年行進曲	せいねんこうしんきょく	日本		54
861	青年讃歌	せいねんさんか	日本		56
862	俺は枕木	おれはまくらぎ	日本		57
863	休憩どき	きゅうけいどき	日本		58
864	手のひらのうた	てのひらのうた	日本		60
865	水爆犠牲者を忘れるな	すいばくぎせいしゃをわすれるな	日本		61
866	悲しみに苦しみに	かなしみにくるしみに	日本		62
867	死んだ女の子	しんだおんなのこ	日本		63
868	水爆はいやだ	すいばくはいやだ	日本		64
869	愛する街	あいするまち	日本		65
870	砂川かぞえ歌	すながわかぞえうた	日本		66

871	火に	ひに	日本	67
872	青年よ団結せよ	せいねんよだんけつせよ	日本	72
873	世界の青春	せかいのせいしゅん	ロシア	72
874	原爆を許すまじ	げんぱくをゆるすまじ	日本	73
875	しあわせの歌	しあわせのうた	日本	73
	やなぎ	やなぎ	ロシア	10 13

표 2 레파토리 선곡집 『청년가집』 수록곡